www.stylechosun.co.kr

03

March 2026
vol. 300

Style 조선일보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Style Update



CHAUMET

PARIS

Bee de Chaumet

loropiana.com

Loro Piana

omegawatches.com



Seamaster

PLANET OCEAN

한계를 넘어서는 탐험, 플래닛 오션. 오메가의 탐험 정신을 담은 최신 코-액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모델이 바다의 부름에 따라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시그니처 오렌지 컬러의 혁신적인 세라믹 베젤과 날카롭고 각진 케이스가 조화를 이루며, 현대적이면서도 활기찬 럭셔리 스타일을 완벽하게 구현합니다. 바다가 부르는 순간, 플래닛 오션이 새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OMEGA

갤러리아 명품관 EAST 광교점 **롯데** 본점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인천터미널점 **현대** 목동점
무역센터점 더현대서울점 **신세계** 본점 더 리저브 강남점 타임스퀘어점 대전 아트앤사이언스점 대구점

Contents

MARCH 2026 / ISSUE.300

10_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12_SELECTION 경쾌한 컬러의 셔츠와 백,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스니커즈부터 우아한 디테일이 어우러진 주얼리까지. 일상에서도 세련된 에너지를 전하는 스포티 스타일.
13_PERFECT COMPLEXITY 복잡할수록 더 매력적인 워치 셀렉션.
15_ON THE MOVE 자유로운 움직임과 활기를 전하는 러버 및 패브릭 스트랩 워치는 아웃도어부터 일상까지 경쾌하게 즐기기 좋다.
16_문화적 체험의 장이 되어가는 호텔 생태계 여행의 의미가 '어디로 떠나는가'에서 '유의미한 경험을 위한 머무르기'로 옮겨 가고 있다. 특히 밀레니얼·Z 세대와 프리미엄 여행객 사이에서는 단순한 숙박보다 스토리, 문화, 로컬 체험에 관심을 쏟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18_A LEGACY FORGED IN HONOR 장인 정신과 기술적 유산으로 프랑스 대표 헤리티지 주얼리 메종으로 자리매김한 아르투스 베르트랑(Arthus Bertrand)의 시간.
22_GET THE LIST 사랑을 전하는 가장 우아한 방식.
24_RING MY BELL 단독으로 또는 레이어링해도 좋은 스몰 클래식 펜던트.
25_SHAPING THE FUTURE 하이엔드 워치메이킹 기술력과 탁월한 금세공 노하우로 오랜 시간 주얼리 워치 메종의 품격을 지키고 있는 피아제(Piaget)의 CEO 벤자민 코마(Benjamin Comar)의 이야기를 통해 피아제의 컬러풀하고 조이풀한 미래를 들여다본다.
26_OPEN YOUR MIND 사이즈 제약 없이 아름다움을 2배로 누릴 수 있는 오픈 스타일 링.
27_SPRING IS BLOOMING 반클리프 아펠(Van cleef & Arpels)의 새로운 럭키 스프링 컬렉션과 아티스트와의 협업으로 완성한 마법과도 같은 봄의 정원으로의 초대, '스프링 이즈 블루밍(Spring Is Blooming)'.
28_TIMELESS APPEAL 로에베 2026 S/S 컬렉션과 함께 공개된 아마조나 180 백을 통해 하우스의 근간과 시간을 초월한 아름다움의 의미를 다시금 조명한다.
30_SPRING FEVER 산뜻한 봄 날씨처럼 가볍고 편안한 로 프로파일 스니커즈.
31_CRAFTED FOR COMFORT 베네데타 보롤리(Benedetta Boroli)에서 3월 19일부터 4월 19일까지 약 한 달간 아이코닉한 '스니커리나(Sneakerina)'를 공개하며, 밀라노와 서울을 연결하는 의미 있는 만남을 펼칠 예정이다.
32_BOLD BAGS 견고한 셰이프, 단정한 디자인, 심플한 디테일. 이번 시즌 뉴 백은 이 안에 답이 있다.
40_피부 본연의 빛을 향한 여정 마케팅을 넘어 원료의 차별화와 연구 기술의 집약으로 존재감을 키워가는 ICD의 여정.
42_BOTANIC SPROUT 햇살 가득한 싱그러운 기운이 깃든 올봄 신상 향수 6.
44_SAVE MY FACE 더 어려지고 싶다면 화장대를 재정비해야 할 때.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안티에이징 제품이다.
45_THE SUITE LIFE 곡선과 직선이 어우러진 조형적 실루엣과 생기 있는 컬러로 하나만 두어도 분위기를 바꾸는 1인용 체어.







이탤리언 모던 럭셔리 브랜드 토즈(Tod's)가 2026 S/S 시즌 T 타임리스 쇼퍼 백을 선보인다. 이번 시즌 새롭게 출시되는 셰이프로, 마이크로 'T' 로고 스트랩 클로저와 골드 메탈 피니싱 등 세밀한 디테일을 반영했다. 본연의 형태미를 유지하면서도 우아함과 실용성을 균형 있게 담은 현대 여성의 백이다. 문의 02-3448-0442

stylechosun.co.kr
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십시오. stylechosun.co.kr





Style 조선일보

대표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성정민 sjm@chosun.com **에디터** 김하얀 stylechosun.khy@gmail.com, 윤자경 yjk@chosun.com **디지털 에디터** 신정임 sji@chosun.com
인턴 에디터 김지현 sjkjh00@gmail.com **디자인** 나나바나스튜디오 **교열** 이정현 **수정** 박민정
광고·마케팅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정희 lj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노연경 **분해·제판** 덕일 **인쇄** 타라티피에스
기사 및 광고 문의 02-749-5665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페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Cartier

INSIGHT



Quiet Allure

샤넬 스몰 쇼핑 백은 가로로 긴 셰이프로 동시대적 미감을 고스란히 반영한 백이다. 중앙의 금장 로고와 입체적인 퀼팅 디테일, 넉넉한 사이즈와 수납력, 그리고 가늘고 긴 톱 핸들은 어깨에 멜 때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착용감을 선사하며 단정하면서도 기능적인 디자인을 강조한다. 매끄러운 카프 스킨 소재와 가방 양 사이드의 드로스트링 디테일은 가방 셰이프에 변주를 주어 색다른 분위기를 부여한다. 편안함과 형태적 조화, 스타일을 두루 갖춘 균형 잡힌 스몰 쇼핑 백으로 스프링 룩의 완성도를 높여볼 것. 문의 080-805-9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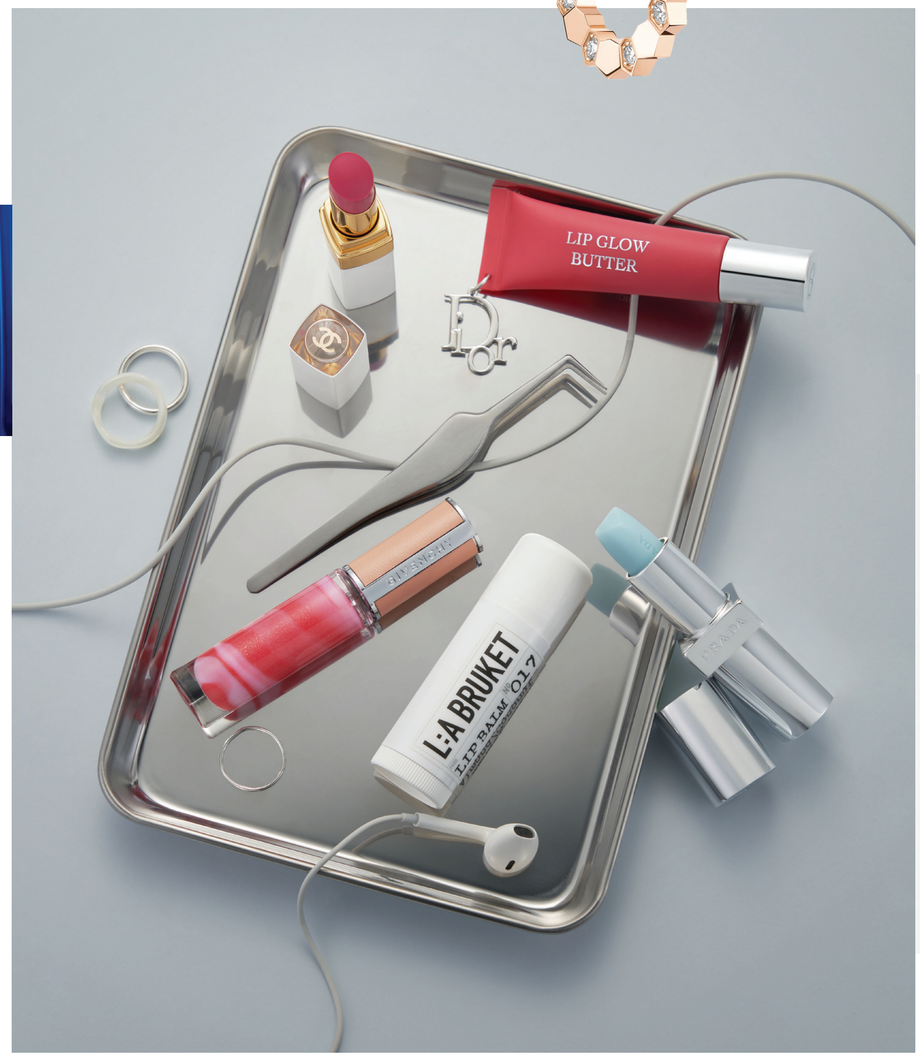
Racing Blood

메르세데스-AMG 페트로나스 포뮬러 원™ 팀과 오랜 케미스트리를 이어가는 스위스 럭셔리 워치 메종 IWC 샤프하우젠에서 팀 대표 드라이버 조지 러셀과 협업해 완성한 파일럿 워치 리미티드 에디션 2종을 선보인다. '파일럿 워치 크로노그래프 41 조지 러셀(Ref. IW389411)'과 '파일럿 워치 오토매틱 41 조지 러셀(Ref. IW328107)'이 그 주인공. 모두 IWC 크리에이티브 팀과 조지 러셀이 협력해 디자인했으며, 블랙 산화지르코늄 세라믹 케이스를 기반으로 러셀의 시그너처인 블루 컬러 포인트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티타늄 소재의 케이스 백에는 러셀이 카트 챔피언십 시절부터 포뮬러 원에 이르기까지 사용해온 엔트리 번호 '63'을 각인해 소장 가치를 더했다. 각각 전 세계 1천63피스 한정으로 출시된다. 문의 1877-4315



Timeless Elegance

이번 시즌 단 하나의 데일리 백을 고른다면 토즈의 T 타임리스 백을 꼽을 수 있다. 모던한 디자인에 가방 전면을 감싸듯 자리한 T 로고 스트랩과 알맞은 깊이의 핸들을 매치해 숄더와 토트백으로 활용 가능하다. 군더더기 없는 블랙 버전을 시작으로, 브랜드 시그너처 고미니 밀창 디자인에서 영감받은 천공 디테일의 화이트, 브라운 컬러까지, T 타임리스 백은 브랜드 고유의 우아함과 정교한 제작 기술력을 동시에 보여준다. 문의 02-3448-8233



Color Me Softly

립 컨디션을 개선하는 제품.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샤넬 뷰티 루쥬 코코 밤 샤인 762 라즈베리 키스** 부드럽게 녹아들 듯 발리며, 여러 번 레이어링해 원하는 농도의 컬러로 연출 가능하다. 3g 5만1천원. 문의 080-805-9638 **크리스챤 디올 뷰티 디올 어딕트 립 글로우 버터 #105 리치** 립 케어, 컬러, 광채 효과를 하나의 제품으로 집약한 글로스-밤 하이브리드 제품. 10ml 5만원대. 문의 080-342-9500 **프라다 뷰티 프라다 립밤 U001** 비피두스 추출물과 호호바 오일을 함유해 촉촉한 사용감이 특징이다. 3.8g 6만원. 문의 080-835-0097 **라부르켓 017 립밤 아몬드/코코넛** 비즈 왁스, 아몬드 오일, 코코넛 오일 등 자연 유래 성분을 포함해 뛰어난 보습력을 자랑한다. 14g 2만5천원대. 문의 1644-4490 **지방시 뷰티 로즈 퍼펙토 리퀴드 립밤 N220 필링 핑크** 24시간 지속되는 촉촉함과 플럼핑 효과로 볼륨감 있는 입술을 선사한다. 6ml 4만9천원대. 문의 080-801-9500 포토그래퍼 **윤지영** 인턴 에디터 **김보민**



Beyond the Sea

지난 1월 열린 LVMH 워치 위크에서 태그호이어가 역사적인 시페어러 타임피스에서 영감받은 까레라 크로노그래프 글라스박스 시페어러를 선보였다. 대담한 해양 스포츠 디자인과 1967년 아메리카스컵 우승 요트 '인트레피드'에서 영감받은 인트레피드 틸 컬러, 전통적인 보트 밧줄과 유사한 베이지색 다이얼과 조수간만 표시 컴플리케이션을 적용한 새로운 칼리버 TH20-04 등으로 해양에 대한 유산을 이어나간다. 바다와 정밀한 시간 측정을 연결하는 개척자 정신을 담은 이 워치는 지름 42mm 스틸 케이스로 완성했으며, 스포츠 스트랩을 함께 제공한다. 1천2백45만원. 문의 02-3479-6021



Ultimate Light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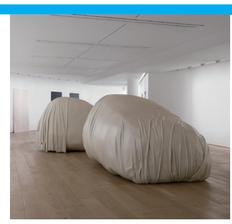
로로피아나가 실크, 울, 캐시미어를 결합한 새로운 패브릭 로열 라이트니스(Royal Lightness)를 선보였다. 약 2년에 걸친 연구와 개발 끝에 이탈리아 메종의 최첨단 시설에서 완성한 이 소재는 장인 정신과 텍스타일 노하우 없이는 구현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섬세하고 가볍다. 최상급 메리노 울과 귀중한 멀버리 실크를 혼합해 제작했으며, 여기에 사용한 울은 전 세계 생산량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희소 섬유로, 부드럽고 은은한 광채를 지닌 것이 특징이다. 로로피아나는 로열 라이트니스를 통해 다양한 룩을 선보이며, 텍스타일의 혁신과 이탈리아 장인 정신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문의 02-6200-7799

EXHIBITION

〈거리의 윤리(Distancing)〉

서울 한남동의 타데우스 로팍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거리의 윤리(Distancing)〉는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데 익숙한 동시대의 시선을 잠시 멈추고 한두 걸음 떨어져 지긋이 살펴보자는 제안을 건넨다(기획 김해나). 한국(김주리, 임노식), 일본(케이 이마즈), 필리핀(마리아 타나구치)의 작가 4명이 참여한 단체전으로 신작 회화 19점, 조각 1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작품을 '읽기'보다 '통과'하며 느슨한 이동 속에서 작품과의 거리를 조절해 초점을 맞추도록 권유한다. 저마다 느끼는 '열린' 의미의 거리감 속에서 거창한 의미 부여보다 감각이 다시 제 속도를 찾을 수 있는 '머무름'의 시간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의도다. 전시장 초입에서 마주하는 평면 작품은 마리아 타나구치의 '벽돌 회화' 시리즈인데, 언뜻 동일한 패턴의 나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탕이 되는 선 하나하나를 연필로 그려 넣고 그 위에 채색을 했다고. 표면에 남은 불규칙과 요철은 시간성을 보여준다. 중앙에서 육중한 존재감을 발산하는 김주리 작가의 '모습(某濕)'은 수분을 머금은 흙 덩어리가 주변과 감응하며 유지되는 조각 작업으로, 균열과 퇴적의 흔적을 평면에 응축한 회화 연작 'desert'와 나란히 자리한다. 젖음에서 응고로, 생성에서 퇴적으로 흘러가는 흙의 변화를 주축에 두고 '순환'을 상기시키는 병치다. 주변 환경에서 비롯된 사건과 감각을 출발점으로 삼는 임노식의 오일 파스텔화는 고운 색조와 경계를 흐리는 번짐 속에 화면의 형상이 서로 겹치고, 밀어내며 묘한 반전 같은 긴장감을 느끼게 한다. 인도네시아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일본 작가 케이 이마즈의 작업은 신화와 민담의 도상, 역사적 이미지에서 건져 올린 파편이 한 화면에서 겹친다. 역사를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침전된 시간의 상태로 드러내는데, 서로 다른 시간과 서사가 충돌하기보다 '완충'의 거리에 놓여 공존한다. 오는 5월 2일까지.

글 **고성연**







김주리의 조각 '모습'이 가운데 놓인 전시 모습, 〈거리의 윤리(Distancing)〉 사진_전병철, 타데우스 로팍 갤러리 런던·파리·잘츠부르크·밀라노·서울 제공

마리아 타나구치, '무제'(2024), 직가·타데우스 로팍 갤러리 제공 사진_닐 오시마

케이 이마즈, 'She Who Treads'(2026)

Courtesy of the artist and Thaddaeus Ropac gallery ©Kei Imazu



(위부터 차례대로) **티파니앤코 티파니 노트 펜던트** 리본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에 라운드 컷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가격 미정. 문의 1670-1837 **포멜라토 투게더 링**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 링과 로즈 골드 링을 수평으로 연결해 영원성을 상징한다. 가격 미정. 문의 0030-8321-0441 **프레드 NEW 샹스 인피니 이어링** 18K 핑크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하고 중앙에 총 0.2캐럿의 페어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514-3721 **그라프 틸다의 보우 컬렉션 라운드 다이아몬드 브레이슬릿** 총 6.77캐럿 다이아몬드로 보우의 유려한 곡선 실루엣을 완성했다. 1억4천만원대. 문의 02-2256-6810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신정임**



미니멀한 실루엣의 레드 컬러
테크니컬 저지 폴로셔츠
2백만원대 **미우미우.**



100% 코튼 소재의
트리옹프 캡
99만원 **셀린느.**



부드러운 카프 스킨
소재의 JOCKEY
맥세이프 카드 홀더
1백30만원대
에르메스.



윌슨(Wilson)과의 컬래버레이션으로
제작한 테니스 공 3개×1세트
14만원 **생 로랑 by 안토니 바카렐로.**



야생화의
아름다움에
영감받은 폴리
데 프레 펜던트
1억3천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선명한 레드 프레임과 와이드 스퀘어 실루엣이 강렬한 포인트를
더해줄 선글라스 60만원대 **발렌티노 by 케어링 아이웨어.**



신속한 기동성을 자랑하는 텔레스코픽 핸들과 멀티휠을 장착한
에센셜 체크인 라지. 50×77×26.5cm, 1백70만원대 **리모와.**



아티스트 캐스퍼 보스만스
(Kasper Bosmans)와
협업해 선보인 브리앙 컬렉션 백
가격 미정 **델보.**

for her Selection

경쾌한 컬러의 셔츠와 백,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스니커즈부터 우아한 디테일이 어우러진 주얼리까지. 일상에서도
세련된 에너지를 전하는 스포티 스타일.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YOON JI YOUNG**



옐로 골드에 화이트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틸다의 보우 다이아몬드
링크 브레이슬릿 8천
8백만원대 **그라프.**



스웨이드와 가죽 소재로 발을
편안하게 감싸주는 애슬레틱
스니커즈 70만원대 **호간.**



손목에 화사함을
부여할 34.9mm
케이스의 레이디버드
컬러즈 레인보우
5천8백만원대
블랑팡.



Aren 비세토스
로켓 파우치 참
40만원대 **MCM.**



여러 겹의 러플이 경쾌한
볼륨감을 주는 헴 스커트
2백80만원대 **루이 비통.**



다이아몬드와 시트린 쿼츠를
세팅한 마르게리타 링
8백만원대 **다미아니.**

미우미우 02-541-7443
셀린느 1577-8841
에르메스 02-542-6622
반클리프 아펠 1877-4128
케어링 아이웨어 02-517-6060
리모와 02-546-3920
생 로랑 by 안토니 바카렐로
02-545-2250
그라프 02-2256-6810
호간 02-540-0523
델보 02-2150-2332
블랑팡 02-3479-1833
MCM 1600-1976
다미아니 02-515-1924
루이 비통 02-3432-1854

에디터 **신정임** 스타일리스트 **이승은**

Perfect Complexity

복잡할수록 더 매력적인 워치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태그호이어 까레라 크로노그래프 익스트림 스포츠** 지름 44mm의 미세 브러싱 및 폴리싱 처리한 18K 5N 로즈 골드 케이스에 블랙 러버 스트랩을 매치했다. 오픈워크 다이얼로 칼리버 TH20-00의 복잡한 움직임을 엿볼 수 있다. 3천2백만원대. 문의 02-3479-6021 **오데마 피게 로열 오크 오프쇼어 셀프와인딩 크로노그래프** 케이스뿐 아니라 브레이슬릿까지 전체를 블랙 세라믹으로 제작해 세련된 단색의 미학을 선보인다. 독특한 패턴의 블랙 메가 태피스리 다이얼과 3개의 카운터가 하이엔드 워치의 복잡한 매력을 선사한다. 자동식 칼리버 4404로 구동한다. 1억4천10만원. 문의 02-543-2999 **브레게 트래디션 7035** 과거 아브라함-루이 브레게가 제작한 택트 워치에서 영감받아 탄생한 워치. 시그너처 블루 기요셰 그랑 푀 다이얼이 브레게 골드 소재 케이스와 조화를 이루며 대비되는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전 세계 2백50피스 한정 출시 6천9백만원대. 문의 02-6905-3571 **피아제 폴로 스켈레톤** 지름 42mm로 완성한 스틸 케이스의 스켈레톤 워치로 피아제 블루 컬러를 가미한 자체 제작 오토매틱 무브먼트 1200S1이 포인트를 부여한다. 헤리티지와 높은 활용도를 갖춘 아이코닉한 디자인의 워치 4천7백50만원. 문의 1877-4275 **IWC 포르투기저 퍼페추얼 캘린더** 18K 레드 골드 소재의 지름 44.2mm 케이스에 산토니사의 다크 브라운 앨리게이터 레더 스트랩을 매치해 클래식한 느낌을 자아낸다. 실제 달 주기와의 오차가 5백77.5년 동안 단 하루에 지나지 않는 문페이즈와 퍼페추얼 캘린더, 전체 연도 표시, 펠라톤 와인딩을 장착한 7일간의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탑재해 기능적으로도 품격을 자랑한다. 7천4백50만원. 문의 1877-4315 **로저드뷔 엑스칼리버 모노밸런시어** 지름 42mm의 무반사 코팅 처리 사파이어 크리스털을 장착한 핑크 골드 케이스에 블랙 앨리게이터 스트랩을 매치한 스켈레톤 워치로 우아한 위엄을 자랑한다. 6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1억3천14만1천5백원. 문의 02-3479-1403 **위블로 스피릿 오브 빅뱅 프로스티드 카본** 모터 레이싱에 널리 사용하는 뛰어난 품질의 카본을 적용해 가벼우면서도 쉽게 변형되지 않는 내구성을 갖췄다. 파이버를 직조한 3D 카본 혹은 컬러가 있는 내포물을 포함한 반투명 카본을 사용해 패턴을 만들어 디자인적으로도 유니크하다. HUB4700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4천만원대. 문의 02-540-1356 에디터 **성정민**





아이코닉한 패턴의 MILEY 햇 가격 미정 **에르메스.**

부드러운 울 소재의 트랙수트 니트 집업 재킷 가격 미정 **보테가 베네타.**

투톤 컬러와 멀티 포켓 디자인이 특징인 리나일론 백팩 가격 미정 **프라다.**

브라이트 블루 스터와 힐 탭 화이트 나파 레더 볼스터 90만원대 **골든구스.**

for him Selection

니트 집업 재킷과 팬츠, 실용적인 디테일과 클래식한 디자인이 어우러진 요가 매트 홀더부터 백팩과 헤드폰, 포인트를 더해줄 워치까지. 도시의 일상과 액티브한 순간을 함께하는 데일리 맨즈 룩.

PHOTOGRAPHED BY **YOON JI YOUNG**



행운을 상징하는 클로버 키 링 90만원대 **디올 맨.**



독특한 스냅 버클과 스탬핑 처리한 토즈 모노그램 및 로고가 돋보이는 그레카 벨트 79만원 **토즈.**

길이 조절 가능한 스트랩이 있는 요가 매트 홀더 80만원대 **MCM.**



로렌스 그라프 시그니처 파셋 다이아몬드 웨딩 밴드 6백60만원대 **그라프.**



오픈 포켓과 지퍼 포켓 및 보온병을 담을 수 있는 넉넉한 수납공간을 자랑하는 플래툰 슬링백 60만원대 **투미.**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탑재한 오버 이어 헤드폰 브라운 80만원대 **몽블랑.**

300m 방수 가능한 슈퍼오션 오토매틱 44mm 가격 미정 **브라이틀링.**





부드러운 코튼 소재의 메이나 삭스 44만원 **로로피아나.**

원형 포켓 디자인의 네이비 팬츠 가격 미정 **스톤 아일랜드.**

블루 틴트 렌즈와 슬림한 메탈 프레임이 어우러진 라운드 선글라스 1백70만원대 **까르띠에 by 커어링 아이웨어.**



프라다 02-3442-1831
에르메스 02-542-6622
보테가 베네타 02-3438-7682 **골든구스** 02-519-2937 **그라프** 02-2256-6810
투미 02-539-8160 **디올 맨** 02-3480-0104
토즈 02-3448-8233 **MCM** 1600-1976
몽블랑 1877-5408 **브라이틀링** 02-798-9501
케어링 아이웨어 02-517-6060 **로로피아나** 02-6200-7799 **스톤 아일랜드** 02-516-2778

에디터 스타일리스트 **윤승아**



On the Move

자유로운 움직임과 활기를 전하는 러버 및 패브릭 스트랩 워치는 아웃도어부터 일상까지 경쾌하게 즐기기 좋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 위부터 차례대로) **파네라이 섭머저블 콰란타콰트로 카보테크** 내구성과 초경량성을 겸비한 44mm의 카보테크™ 케이스에 블루 다이얼, 3시 방향의 데이트 창과 9시 방향의 스몰 세컨즈 디스플레이, 블루 러버 스트랩 등을 매치했다. 2천7백27만원. 문의 02-2118-6256 **블랑팡 피프티 패덤즈** 새틴 브러시드 티타늄 케이스와 블루 다이얼, 단방향 사파이어 베젤을 조합했다. 세월 캔버스 스트랩을 대한 오토매틱 워치로 5일간의 파워 리저브와 300m 방수 기능을 갖췄다. 2천5백만원대. 문의 02-3479-1833 **태그호이어 포뮬러 1 크로노그래프 X 세나 스페셜 에디션** 레이서 아일톤 세나와의 레이싱 파트너십을 기념해 완성했다. 극한의 트랙 환경을 견딜 수 있도록 44mm의 블랙 DLC 티타늄 케이스와 포지드 카본 베젤을 적용하고,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옐로 러버 스트랩으로 강렬함을 더했다. 시, 분, 초와 날짜,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갖춘 칼리버 16 오토매틱 무브먼트로 구동한다. 8백32만원. 문의 02-3479-6021 **위블로 빅뱅 유니코 화이트 세라믹** 42mm 세라믹 케이스와 베젤, 러버 스트랩까지 모두 화이트로 통일해 깔끔한 인상을 준다. HUB1280 매뉴팩처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를 장착했으며, 7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지원한다. 3천만원대. 문의 02-540-1356 **오데마 피게 로열 오크 오프쇼어 셀프와인딩 크로노그래프** 그린 세라믹 베젤과 블랙 세라믹 케이스에 메가 태피스리 패턴 다이얼과 3개의 카운터가 조화롭다. 패브릭 질감의 독특한 송아지가죽 스트랩이 어우러져 스포티하면서도 개성 있는 무드를 이룬다. 9천4백7만원. 문의 02-543-2999 **디올 타임피스 쉬프르 루즈** 브랜드를 상징하는 까나쥬 패턴의 블랙 다이얼, 9시와 12시 사이에 노치(notch) 디테일을 가미한 스틸 베젤, 4시 방향의 레드 크로노그래프 푸셔에 교체 가능한 블랙 매크로 까나쥬 러버 스트랩으로 완성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3280-0104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 우주 탐험에 대한 경의를 담아 무브먼트의 메인 플레이트와 브리지에 달 표면을 양각하고, 그레이 알루미늄 스컬레톤 다이얼과 케이스 백에는 지구에서 바라본 달의 이미지를 구현했다. 44.25mm의 그레이 세라믹 케이스와 베젤에 화이트 슈퍼루미노바® 핸즈와 인덱스를 조합해 시인성을 높이고, 그레이 나일론 패브릭 스트랩으로 마무리했다. 2천3백만원대. 문의 02-543-2999

에디터 **김하얀**





'머무름의 이유'를 만들어내는 '스테이'

문화적 체험의 장이 되어가는 호텔 생태계

여행의 의미가 '어디로 떠나는가'에서 '유의미한 경험을 위한 머무르기'로 옮겨 가고 있다. 오늘날의 스테이는 잠자리와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그 지역의 시간과 공간, 사람과 문화를 압축한 경험의 장이 된다. 특히 밀레니얼·Z세대와 프리미엄 여행객 사이에서는 단순한 숙박보다 스토리, 문화, 로컬 체험에 관심을 쏟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인스타그램 친화적 경험, 체험의 공유, 삶의 지평 확장하기 등의 가치에 비중을 높게 두고 숙소가 위치한 지역과 상호작용하고자 적극 나선다. '호텔을 통해 세상을 경험한다'는 표현까지 나오는 이유다. 얼마 전 글로벌 숙박 플랫폼 기업 에어비앤비가 제주에서 진행한 미디어 행사는 지역 상생을 꾀하는 문화적 체험에 골몰하는 이 생태계의 움직임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세상의 지평'을 넓혀주는 연결 고리로서의 숙박

'여행이 분산될수록 지역사회는 경제적 혜택을 입는다.' 200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2명의 호스트가 사업을 시작한 이래 20년 만에 연간 17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플랫폼 기업이 된 에어비앤비에서 빈번히 강조하는 메시지다. 분산된 여행은 가성비를 보다 높여주고, 지역 경제와 일자리를 북돋우며, 여행자들이 지역사회에 녹아든 듯한 경험을 하게 만드는데, 이처럼 상생적 관광의 혜택을 새롭게 떠오르는 여행지에 나눠주는 '탈집중형 여행'을 에어비앤비가 돕고 있다는 맥락이다. 그런데 한국 여행객의 경험은 여전히 획일화되어 있고, 많은 이가 콘텐츠에 목말라 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에어비앤비는 지난 3월 초 제주 서귀포에서 '대한민국 방방곡곡: 지역에 머물게 하는 공간·콘텐츠·사람'을 주제로 내세운 비전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여행 트렌드의 변화와 지향점을 짚어보는 세션을 진행했다. 지난 1년간 국내 여행 경험자 1천 명(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방문지는 강원, 제주, 부산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여행 목적 역시 미식(64.4%)에, 숙박 형태는 호텔·리조트(70%)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42.4%가 '지역별 특색 있는 콘텐츠·경험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했는데, 20대의 상대적으로 인상적인 대전 방문 비중(7.3%, 4위)은 '빵지순례'로 불리는 대전의 빵집 성심당 같은 로컬 콘텐츠가 여행 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준다(Airbnb, 엠브레인 조사, 2025). 호텔이든 리조트든 에어비앤비든 요즘 숙박을 둘러싼 생태계가 특정 지역을 찾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경험, '앵커 콘텐츠'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를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숙소 자체가 지역을 대표하는 라이프스타일 체험의 장이 되도록 '공간' 만들기에 애쓰고, 크리에이터, 아티스트, 장인과 협업하거나 지역(마을, 자연, 문화)과 연계한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꾸리는 전략적 행보는 날이 갈수록 스펙트럼과 깊이를 더해간다.

문화적 밀도가 높은 체험 콘텐츠의 선두 주자들

사실 호텔 생태계에서 '체험 경제'에 초점을 둔 남다른 콘텐츠는 꽤 오래전부터 존재감을 발휘해왔다. 다만, 소수의 럭셔리 호텔과 리조트가 내세워온 차별화 전략이자 정체성이었다. 아만(Aman), 포시즌스, 벨몬드, 호시노야, 식스센스, 그리고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카펠라(Capella) 같은 브랜드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은 문화적 경험을 엮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여행객을 더 의미 있게 머무르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머무름 속에서 지역을 느끼게 한다.

'문화적 럭셔리'의 선두 주자는 아무래도 아만이다. 수십 년 전부터 천혜의 자연을 품은 외딴곳을 무대로 힐링과 지역 문화를 누리는 콘셉트를 내놓은 리조트 브랜드 아닌가. 이동 거리가 만만치 않은 '원조' 아만의 장점은 리조트 내에서 거의 모든 체험이 이뤄지는 전천후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발리 동쪽에 자리한 언덕 위 리조트인 아만킬라(Amankila)에는 힌두 문화권의 일상이자 의례인 '성수 정화(water blessing)' 의식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알록달록한 전통 의상을 입고 인근 언덕을 오르면 깊고 푸르른 바다를 배경으로 힌두 사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지역 문화의 정수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체험도 가능하다. 외부 영향이 거의 없는 고대 발리 문화의 본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는 텡가난(Tenganan) 마을 투어도 그중 하나. 발리 아가 공동체의 일상과 전통으로 여행객을 데려가는 이 당일 체험에서는 아름다운 '게링싱(Geringsing)' 직물의 복잡한 염색과 무늬 제작 기술을 눈앞에서 볼 수 있다. 또 자연의 선물인 현지산 꿀 시식도 묘미다. 이 마을 주변 숲에 서식하는 침 없는 작은 벌에서 채집하는 검은색의 켈루룻(Kelulut) 꿀은 달콤하면서 신맛 나는 희귀한 약용 꿀이다.

요즘 '문화 큐레이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카펠라는 '도시로 나가는 관문'으로서의 머무름을 설계하는 느낌을 주는 브랜드다. '컬처리스트(culturist)'라 불리는 호텔 스태프의 친절한 안내로 고객을 위한 전천후 라운지인 '리빙 룸'에서 로컬 문화에 대한 간단하지만 나름 실속 있는 세션을 진행하고, 원하면 낮에는 도시 탐험을 권유한다. 그래서인지 호텔의 입지 자체에 굉장히 공을 들인다. 예를 들어 얼마 전 '포브스 5성' 목록에 오른 카펠라 상하이는 옛 프랑스 조계지의 중심 주거 지역인 쉬후이구의 전통 스쿠먼 건축을 보존·복원한 도심형 럭셔리 리조트다. 1930년대에 지은 스쿠먼 골목과 돌문이 연속된 골목길이 호텔 부지를 감싸며, 55채의 스쿠먼 빌라와 40개의 서비스 레지던스로 구성된다. 빌라를 벗어나는 순간 바로 주변 도시 탐험이 시작된다. 골목길을 따라 진행되는 사진 투어는 방문객을 쉬후이의 문화적 풍경으로 초대한 뒤, 프렌치 스타일 공원, 현지 시장, 오래된 주택가 등을 함께 걸으며 상하이의 'now & then'을 포착하게 한다. 호텔 인근에 자리한 저명 작가 샤옌(Xia Yan)의 옛 주택을 방문하며 중국 근현대사의 흔적을 체감하는 코스도 있다.

일본 호시노 그룹의 럭셔리 브랜드 호시노야는 좋은 사례다. 호시노야 가루이자와는 호시노 집안의 료칸 전통을 잇되 현대적 럭셔리를 결합한 공간이다. 나가노현 산속 계곡에 자리한 이 리조트는 자연과 인간, 문화가 유기적으로 얽힌 체험을 제공한다. 리조트를 포함한 인근 커뮤니티를 '호시노 에어리어(Hoshino Area)'라고 부르는데, 문화적 명소와 레스토랑과 상점, 카페가 옹기종기 모여 있다. 원천수로 채운 '톤보노유' 온천은 누구에게나 개방하며, 고객 전용 명상 탕은 극명한 어둠과 빛을 오가며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다. 아마도 가장 독특한 인기 만점 프로그램은 '퍼키오 야간 투어'일 것이다. 날다람쥐의 야간 비행을 관찰하는 프로그램으로, 자연 속 생명체의 리듬을 온몸으로 느끼는 경험이다. 그들의 일상 패턴을 방해하지 않고 그저 자연적 리듬에 따른 움직임을 숨죽여 지켜보는 생생한 묘미가 남다르다. 조금만 더 지역을 탐방한다면 이 마을의 명소인 돌 예배당과 자연보호 운동가이자 시인인 나카니시 고도(中西悟堂, 1895~1984)의 흉상, 10 카펠라 상하이의 외관. 이미지 제공_카펠라

1 제주돌문화공원의 이른 봄 풍경. 제주의 뿌리가 되어온 돌 문화를 집대성한 역사와 문화의 공간으로, 부지 내에 박물관도 있다.
2 에어비앤비는 지역사회를 후원하는 '커뮤니티 펀드'의 국내 지원 파트너로 사단법인 제주올레·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한국해비타트 등 3개 단체를 선정했다. 지난해 영업 신고증을 내지 않은 숙소를 자발적으로 퇴출한 데 이어 지역 발전 모델링, 기금 지원 등 정부와 협력하며 지역 여행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정부 차원의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3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해안에 위치한 서우봉. 아름답고 오르기도 쉬운 함덕 서우봉 오름도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꾸리는 프로그램 목록에 있다. 제주에는 3백 60개가 넘는 오름이 있다.
4 제주 서우봉 오름 가는 길.
5 에어비앤비는 지난 3월 5일 진행한 제주 비전포럼에서 사단법인 제주올레에 기금(커뮤니티 펀드)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최순덕 호스트,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 안은주 사단법인 제주올레 대표, 김순희 호스트. 6 인도네시아 발리 동쪽의 아만킬라 인근에서 '성수 정화'를 받을 수 있는 작은 사원.
7 발리의 가장 오래된 전통 마을 텡가난(Tenganan). 발리 원주민 집단인 '발리 아가(Bali Aga)' 후손들이 산다. 8 료칸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반영한 호시노야 가루이자와. 9 일본 문인들이 머물던 온천 휴양지 가루이자와의 조류 연구자이자 시인 나카니시 고도(中西悟堂, 1895~1984)의 흉상. 10 카펠라 상하이의 외관. 이미지 제공_카펠라
※1, 3, 4, 6~9 Photo by 고성연
※2, 5 이미지 제공_에어비앤비

시비(poetic monument)와 흉상 등 볼거리가 풍부하다. 숙소 자체가 지역적 서사와 결합되어, 하루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방문객은 내면적 여정을 머금은 '몰입형 스테이'를 누릴 수 있다.

상생을 모색하는 플랫폼, 에어비앤비의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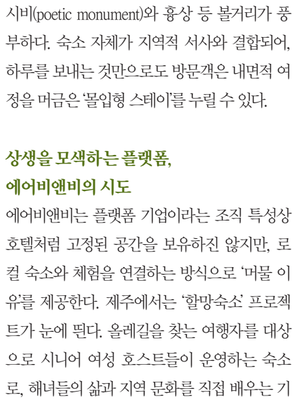
에어비앤비는 플랫폼 기업이라는 조직 특성상 호텔처럼 고정된 공간을 보유하진 않지만, 로컬 숙소와 체험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머물 이유'를 제공한다. 제주에서는 '할망숙소' 프로젝트가 눈에 띈다. 올레길을 찾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시니어 여성 호스트들이 운영하는 숙소로, 해녀들의 삶과 지역 문화를 직접 배우는 기회를 제공해 인기를 끌기도 했다. 지금은 노후된 시설도 많아지고, 할망들도 건강이 안 좋아져서 새롭게 정비한 뒤 시즌 2를 펼칠 예정이다. 서울에서 반세기를 살다가 제주의 자연에서 안식을 찾은 해녀 최순덕 씨, 그리고 30년 넘게 수학을 가르치다 제주에 와서 해녀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한 김순희 씨는 에어비앤비의 제주 비전 포럼에서 향후 '할망숙소' 호스트로서의 설렘 깃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해녀의 조업 방식, 바다와 인간의 관계, 그리고 제주 문화 속 생존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통해 여행객은 숙소를 디딤판 삼아 지역인의 일상, 음식, 마을 이야기를 접하고 '왜 여기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감각적으로 체득하게 된다. 제주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머물 이유'를 알려주는 경험 콘텐츠가 창의적이지만 인위적이지 않게 샘솟기를 바란다. ㄹ 고성연











A Legacy Forged in Honor

나폴레옹 시대부터 시작해 역사적으로 남다른 탄생 배경을 지닌 아르투스 베르트랑(Arthus Bertrand). 단순한 주얼리 브랜드를 넘어 국가와 개인의 영광을 상징하는 오브제를 제작하며 2백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독보적인 정체성을 구축해왔다. 장인 정신과 기술적 유산으로 프랑스 대표 헤리티지 주얼리 메종으로 자리매김한 아르투스 베르트랑의 시간.



1

아르투스 베르트랑(Arthus Bertrand)의 시작은 1803년 프랑스 파리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군부 공식 인쇄업자였던 클로드 아르투스 베르트랑(Claude Arthus Bertrand)과 군 장식물 제작자 미셸-앙주 마리옹(Michel-Ange Marion)은 당시 프랑스 해군부의 주문을 받아 군 장식과 깃발 제작, 출판 및 항해 기록 제작 등을 협업해 왔다. 이후 점차 파트너십을 넘어 국가 권위를 상징하는 오브제 제작 전문 메종으로 자리매김했다. 19세기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요청으로 지금의 아르투스 베르트랑 주얼리의 시초가 된 프랑스 국가 공인 명예 훈장을 제작하면서 현재까지 프랑스 국가 공인 명예 훈장 제작사로 남아 있다.

1910년 아르투스 베르트랑은 파리 생제르맹데프레에 대표 매장을 오픈한다. 이 매장은 오늘날까지 이어온, 파리의 가장 오래된 매장 중 하나다. 1925년에는 메달 제작 전문성을 기반으로 첫 유아 세례 메달 컬렉션을 선보이며 아름다움과 품질 위주의 메달을 제작했다. 훗날 주얼리 메종으로서의 기반이 되는 첫걸음을 뗀 순간이었다. 이후 아르투스 베르트랑은 전통 훈장과 메달, 주얼리의 영역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프랑스 대표 메종이 된다. 1953년 또 한번 프랑스 대통령들에게 수여하는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의 그랑 크루아를 제작하며 프랑스 국가적 신뢰를 입증한다. 그 이후로도 수많은 아카데미시안 링(Academician's Ring), 노블 시그넷 링(Noble Signet Ring) 등과 같이 상징적인 오브제를 탄생시키며 주얼리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의미 깊은 오브제와 훈장을 제작하는 전문 메종으로 자리 잡았다.



2



3



4

1 체인 포르싸 롱 컬렉션의 스피랄 에뚜알 옐로우 골드 45cm 5백70만원.
2 브랜드의 역사와 장인 정신을 엿볼 수 있는 국가 훈장.
3, 4 파리에 위치한 아르투스 베르트랑 매장.

이처럼 아르투스 베르트랑은 타 주얼리 메종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국가에서 공인한 프랑스 장인 정신을 품은 메종이기에 시대를 초월하는 독창적인 오브제뿐 아니라 매력적이면서도 각 개인을 위한 주얼리를 생산해낸다. 많은 주얼리 메종이 프랑스 국가 유산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그 헤리티지를 이어오고 있는 메종은 드물다. 또 각 아트피스들은 아직까지도 오직 프랑스에서 프랑스 장인들이 디자인하고 제작한다. 따라서 아르투스 베르트랑 주얼리는 대담하고 독창적이면서도 개인의 특별한 의미를 담은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전문성과 독창성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주얼리 및 오브제 메종으로서의 전문성을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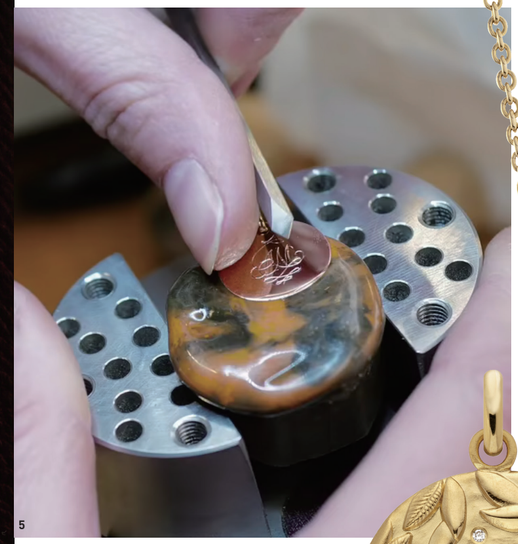
정통 프렌치 장인의 노하우

아르투스 베르트랑의 가장 큰 강점은 2백 년 이상 이어져온 장인 기술의 축적이다. 현재 메종은 팔레조(Palaiseau)와 소뮈르(Saumur)에 위치한 워크숍에서 약 1백50명의 장인이 함께 작업하며, 모든 컬렉션을 프랑스에서 직접 제작한다. 특히 팔레조 워크숍은 수 세기 동안 이어져 온 제조 전통을 간직한 메종 제작의 중심지로, 브랜드의 기술적 유산을 상징하는 곳이다.

메종의 제작 방식은 전통 공예와 현대 기술의 정교한 결합이라는 점에서 독보적이다. 바스릴리프 조각, 스탬핑, 핸드 인그레이빙, 그랑 푀 에나멜, 플리크-아-주르 에나멜 같은 역사적 기법은 물론 3D 디자인, 정밀기계 가공, 레이저 인그레이빙 등 현대 기술까지 폭넓게 활용한다. 이러한 기술적 융합은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로 나아가는 메종의 철학을 그대로 보여준다.

2014년 프랑스 정부에서 받은 EPV(Entreprise du Patrimoine Vivant) 인증은 이러한 장인 정신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EPV는 뛰어난 전통 기술과 산업적 전문성을 보유한 기업에만 부여하는 국가 인증으로, 아르투스 베르트랑이 프랑스 제조 유산의 핵심을 지키는 메종임을 보여준다. 메종의 모든 제작 과정에는 시간이 지나며 축적된 노하우가 담겨 있다. 메달 제작만 해도 디자인, 조각, 금형 제작, 스탬핑, 열처리, 마감 등 약 25단계를 거쳐 완성된다. 이러한 공정은 단순한 생산 과정이 아니라 세대를 통해 전해 내려온 기술과 경험의 집약체다. 그 결과 아르투스 베르트랑의 메달은 단순한 장신구를 넘어 개인의 기억과 의미를 담는 상징적 오브제로 인식된다. 오늘날 아르투스 베르트랑은 국가적 명예를 상징하는 훈장 제작 메종이자, 개인의 이야기를 담는 주얼리를 창조하는 브랜드라는 두 가지 정체성을 동시에 지닌다. 6세대에 걸쳐 이어진 역사와 장인 정신, 그리고 프랑스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이해는 메종의 가장 큰 자산이다. 이에 더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나는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이 바로 아르투스 베르트랑이 2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하지 않고 지켜온 본질이며, 앞으로도 이어갈 유산이다.

5 메종의 인그레이빙(매뉴얼 각인) 작업을 엿볼 수 있는 제작 과정. 6 아르투스 베르트랑이 제작한 국가 훈장.
7 네크리스 코메디 트라페즈 라지 옐로우 골드 42cm 8백50만원.
8 알레고리 컬렉션 메달 다프네 옐로우 골드 다이아몬드 21mm 5백30만원.
9 앙쥬 컬렉션 메달 라파엘 엔젤 마더오브펄 옐로우 골드 14mm 1백25만원.
10 미니 메달리온 메달 문 로열블루 옐로우 골드 10mm 90만원. 11 미니 메달리온 메달 문 로열블루 옐로우 골드의 뒷면.
12 아르투스 베르트랑의 스탬핑 기법.



5



6



7



8

9



10



11



12





전통 크리에이션

아르투스 베르트랑 메종의 전통적인 크리에이션에는 '체인'과 '명예 훈장'이 있다. '체인'은 주얼리를 구매할 때 함께 고려하는 요소로 타 메종과 달리 아르투스 베르트랑은 스피랄이나 트라페즈 네크리스같이 하드웨어가 달린 체인 네크리스를 선보이며 선택의 범위를 넓혔다. 둥근 링크와 매트하게 마감한 라운드 체인, 각이 살아 있는 직사각형 링크에 광택 마감으로 마무리한 파일드 체인 외 자스롱, 스트리에, 직사각, 더블 체인 등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한다. 그 뿐 아니라 18K 골드, 925 실버, 그리고 버메일 소재의 체인도 선보인다. 모든 체인에는 아르투스 베르트랑의 이름이 새겨진 섬세한 골드 태그가 부착되어 있으며, 일상 착용 시 안전성을 고려한 랍스터 잠금장치가 적용되어 있다. 또 하나는 '명예 훈장'이다. 여전히 아르투스 베르트랑은 프랑스 국가 공인 명예 훈장 제작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를 대표하는 6대 주요 훈장을 제작하며, 이 훈장들은 국가 훈장(National Orders)과 부처 훈장(Ministerial Orders)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션

전통 크리에이션을 기반으로 아르투스 베르트랑은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컬렉션을 선보인다. 먼저 코메디(Comédie) 컬렉션은 프랑스 희극에서 영감받은 여러 막으로 구성된 예술적 컬렉션으로, 메종의 역사적인 스탬핑 기법으로 제작한 메달들이 취향에 따라 조합되며, 전통적인 메달을 유희적으로 재해석한다. '에뚜알 컬렉션'은 태초부터 인간에게 꿈과 상상을 불러일으켜온 '별'을 모티브로 했다. 이외에도 작은 디테일에 깊은 의미를 담아낸 '미니 메달', 프랑스 화가이자 조각가 로사 보뇌르의 작품에서 영감받은 별자리 모티브의 '아스트로 컬렉션', 부조와 메달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지닌 조각가 샤를 필레(Charles Pillet)의 작품을 메달로 재탄생시킨 '알레고리 컬렉션', 메달 메사쥬, 메달 미라큘르즈 등 다양한 메달 컬렉션을 선보인다. 또 다채로운 주얼리 컬렉션을 통해 링, 브레이슬릿 등도 만나볼 수 있다. 골드 또는 실버 소재의 꼬임으로 완성한 '엉라세(Enlacé) 컬렉션', 리본의 그로그랭(grosgrain) 텍스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루방(Ruban) 컬렉션', 마지막으로 19세기 파리의 낭만적인 분위기와 파리지앵 주얼리의 탄생지인 로얄 거리(Rue Royale)의 세련됨을 담은 '로얄(Royale) 컬렉션'까지. 각각의 개성과 취향에 따라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그 뿐 아니라 특별한 각인 서비스도 제공하는데, 주얼리 인그레이빙에 특화된 기계를 이용해 지속력 높은 기계 각인을 제공하며, 세 가지 타이포그래피가 가능하다. 기계 각인 외에도 깊이가 더 깊은 매뉴얼 각인도 가능하다. 캘리그래피 기법을 사용해 생동감 있으며, 메달마다 고유한 개성을 부여할 수 있다.

1 별을 모티브로 한 아르투스 베르트랑 에뚜알 컬렉션의 메달과 링을 착용한 모델.
2 아르투스 베르트랑 메달 플뤼 에뚜알 옐로우 골드 다이아 펜던트 18mm 2백60만원.
3 프랑스 희극에서 영감받은 모티브를 재해석해 브랜드의 스탬핑 기법으로 담은 코메디 컬렉션.



한국을 찾은 프랑스 헤리티지 주얼리 메종

역사 깊은 프랑스 헤리티지 주얼리 메종 아르투스 베르트랑이 국내 첫 정규 매장을 오픈한다. 이미 신라 면세점에 입점되어 있으나 공식 매장으로서는 처음이다. 더불어 아시아 국가 중 첫 무대로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이 더 뜻깊다. 매장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과 목동점에 먼저 오픈하며 이를 기념하여 글로벌 타투이스트 아프로 리(Apro Lee)와 협업해 제작한 컬렉션을 국내 매장 단독으로 선보인다. 아르투스 베르트랑은 늘 많은 아티스트들과 협업해왔다. 작년엔 패션 브랜드 라반(Rabanne)의 2025 S/S 패션쇼에서 아르투스 베르트랑X라반 1969 골드 백과 1969 메달리온을 선보이기도 했다.

아프로 리는 자신의 작업의 중심 소재인 한국 민화 속 호랑이를 아르투스 베르트랑의 장인 정신을 빌려 메달에 담았다. 여기에 까치와 소나무를 함께 넣어 '호작도'의 상징성까지 더했다. 따라서 이번 메달은 단순한 장식이 아닌 기쁜 소식, 장수, 새로운 시작, 수호와 명예, 위엄 등의 의미를 지닌 럭키 참(lucky charm)으로서의 역할을 더한다. 추가로 아르투스 베르트랑에서는 첫 아시아 진출의 의미를 담은 아시안 조디악 호스 옐로 골드 메달도 선보인다. 올해 십이지신 동물 '말'을 메종의 새로운 시선으로 재해석해 바스릴리프 기법을 통해 정교한 각인으로 담아냈다. 2백 년 이상 축적된 메종의 장인 기술과 고유한 동양의 아이덴티티가 만나 동서양의 진정한 조우를 이루는 특별한 메달이라 할 수 있다. 아프로 리 컬래버레이션 컬렉션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아르투스 베르트랑 매장은 파리 생제르맹데프레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비롯해, 빅토르 위고 애버뉴(Avenue Victor Hugo)와 로얄 거리의 신규 매장, 리옹·툴루즈·보르도·도빌·브뤼셀·릴·스트라스부르, 그리고 오스만 백화점(프렝탕, 라파예트) 등에 위치한다. 2024년부터는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국제적 확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과 미국 시장에서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문의 02-3467-8394 에디터 **성정민**

4 스피랄 네크리스에 레이어링한 메달 로즈와 미니 에뚜알. **5** 미니 메달 컬렉션의 메달 클로버 에메랄드 그린 옐로우 골드 10mm 65만원.
6, 7 첫 아시아 진출의 의미를 기념하는 아시안 조디악 메달 아시안 호스 옐로우 골드 다이아 15mm 2백55만원.
8, 9 한국 매장 오픈을 기념해 글로벌 타투이스트 아프로 리와 협업해 출시하는 메달 아프로 리 호작도 실버 30mm 70만원.













Get The List

사랑을 전하는 가장 우아한 방식.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AUDEMARS PIGUET
지름 43mm 블랙 세라믹 케이스와
그린 세라믹 소재의 베젤, 크라운,
푸시 버튼, 그리고 송아지가죽
스트랩이 조화를 이루며
그린 메가 타피스리 다이얼이
유니크한 매력을 자아내는 로열
오크 오프쇼어 셀프와인딩
크로노그래프 9천4백7만원
오데마 피게. 문의 02-543-2999



TIFFANY & CO.
(위부터) 화이트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 0.23캐럿을 파베 세팅한
티파니 T 트루 네로우 링, 옐로
골드에 다이아몬드 1.32캐럿을
파베 세팅한 티파니 하드웨어 스몰
링크 링,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
0.99캐럿을 파베 세팅한 티파니
T 트루 와이드 링, 로즈 골드에
다이아몬드 0.54캐럿을 파베 세팅한
티파니 T T1 링 모두 가격 미정
티파니앤코. 문의 02-6250-8620



TOD'S
아이코닉한 T 스트랩이 백
전체를 감싸 모던한 감각을
더하며, 특유의 부드러운
셰이프가 우아하고 클래식한
무드를 완성하는 T 타임리스 백
3백9만원 **토즈.**
문의 02-3448-8233



OMEGA
지름 29mm 스테인리스 스틸 및
18K 옐로 골드 케이스에 폴리싱
처리한 클러, 반달 모양 면과 같은
시그너처 디자인에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 베젤을 더한 컨스텔레이션.
실제 철운석 조각을 사용하고
PVD 문사인™ 골드 처리한
특유의 패턴 다이얼이 돋보인다.
2천5백만원대 **오메가.**
문의 02-3467-8632



LORO PIANA
브랜드의 텍스타일 헤리티지를 담은
제품으로 유연한 파인 그레인 가죽
소재에 베이비 캐시미어 색조로
패들록을 장식한 뒤 시그너처
창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숄더나
핸드백으로 활용하기 좋은 스몰
사이즈의 니들 백 가격 미정
로로피아나. 문의 02-6200-7799



PRADA
날카로운 실루엣, 기하학적인
키트 힐 등 상징적인 프라다
트라이앵글에서 영감받은
여성스러운 테이퍼드 라인이
돋보이는 페이턴트 가죽 소재의
슬링백 펌프스 가격 미정
프라다. 문의 02-3442-1831



ROGER DUBUIS
티타늄 컨테이너와 러버 인레이
장식을 가미한 이온 골드
케이스에 전사 처리한 텍스트와
미닛 트랙을 적용한 핑크 골드
도금 하부 플랜지, 로듐
도금한 나사 모양 아워 마커를
장착한 화이트 세라믹 상부
플랜지로 완성한 엑스칼리버
스파이더 모노투르비용 2억
8천5백99만5백원 **로저드뷔.**
문의 02-3479-1403

어시스턴트 **김지원**



CHANEL
마티유 블라지가 2026 S/S
컬렉션에서 선보인 뉴 백으로,
부드러운 램 스킨과 골드 톤 메탈로
완성한 미니멀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이 세련미를 자랑하는
스몰 쇼핑 백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에디터 **성정민**

Shaping the Future

하이엔드 워치메이킹 기술력과 탁월한 금세공 노하우로 오랜 시간 주얼리 워치 메종의 품격을 지키고 있는 피아제(Piaget). 창립 150주년을 지나 작년 피아제 식스티(Sixtie)를 성공적으로 론칭한 후 브랜드는 또 한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전통과 혁신, 장인 정신과 창의성을 균형 있게 이어가며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지금, 메종을 이끄는 CEO 벤자민 코마(Benjamin Comar)의 이야기를 통해 피아제의 컬러풀하고 조이풀한 미래를 들여다본다.



1

Style Chosun(이하 SC) 새로운 해를 맞이한 지금, CEO 혹은 개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이 궁금합니다.
동양 문화권에서 올해를 '붉은 말'의 해로 칭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역동성의 상징인 말처럼 새로운 에너지가 넘치는 해라고 하던데, 한국을 방문하니 그 사실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수비학적으로도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해라고 합니다. 2026의 숫자를 전부 더하면 10이 되고, 다시 1과 0을 더하면 시작의 숫자인 1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해가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도 피아제에도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SC 올해 152주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을 돌아봤을 때 만족스러운 점과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150주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52주년이 되었네요. 150주년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한 해였습니다. 특히 작년에 완전히 새로운 워치 컬렉션인 피아제 식스티(Sixtie)를 출시했는데,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피아제의 전통과 정신을 잘 담고 있으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잘 재해석된 타임피스죠. 게다가 글로벌 앰배서더 전지현 씨와의 파트너십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제네바부터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행사까지 매우 만족스러운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 고객과 브랜드 직원, 언론까지 모두 좋은 반응을 보여주어 저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물론 후회되는 점도 있기 마련이겠지만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후회에 머물기보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SC 언급하신 피아제 식스티의 론칭은 '전지현 워치'로 불릴 만큼 큰 화제를 불러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성공할 것이라 예상하셨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라임라이트 갈라'나 '피아제 폴로'처럼 탄탄한 워치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식스티는 또 다른 포지션으로 어필한 것 같습니다. 식스티는 드레시하면서도 캐주얼한 면도 지니고 있죠. 바로 이러한 점이 고객들에게 가까이 다가간 같습니다. 전지현 씨와 함께하게 된 것도 행운이었습니다. 그녀처럼 이 시계를 완벽하게 대변해줄 인물을 찾기는 힘들 것입니다. 우아하면서도 스마트하고 강인한 여성상의 표본이니까요.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었고, 고객들에게도 거부감 없이 스며들었던 것 같습니다. 피아제가 추구하는 '동시대성'이 발현된 순간이었죠.



SC 피아제는 초박형 워치메이킹뿐 아니라 하이 주얼리 양쪽에서 모두 아이코닉한 유산을 지닌 브랜드입니다. 또 역사가 깊은 만큼 방대한 아카이브를 갖추고 있죠. 앞으로 이 두 세계의 균형과 시너지를 어떻게 확장하며, 피아제의 유산을 지켜나갈지 궁금합니다. 이브 피아제(Yves Piaget)는 "피아제 시계는 하나의 주얼리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피아제 문화는 시계에서 시작되었더라도 주얼리로 넘어가는 단계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피아제 폴로 79(Polo 79)' 역시 제작 당시 주얼리처럼 디자인되었습니다. 특히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이 하나의 유기적 형태로 이어지는 디자인은 '시간을 알려주는 주얼리'라 말할 수 있죠.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피아제가 시계와 주얼리를 연결하는 지점입니다.

SC 30년에 걸쳐 많은 주얼리와 하이엔드 워치메이킹 메종을 경험하면서 느낀 것이나 피아제를 이끄는 리더십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을까요? 또 타 메종과 비교해볼 때 피아제만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다른 브랜드들을 겪으며 느낀 것은 모두 각자의 세계가 있고 그 자체로 흥미롭다는 사실입니다. 피아제만의 차별점을 말하자면 앞서 언급한 워치와 주얼리 두 가지 모두에 굉장한 노하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스톤 세팅을 위해 울트라-신 무브먼트를 사용해 두께의 제약에 도전하거나 탁월한 금세공 기술로 골드에 투르비용을 디자인하는 식이죠. 다른 전통적인 워치메이커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도전하며, 그것을 완성해낼 수 있는 워치메이킹과 주얼리 세팅 기술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종은 유일무이할 것입니다.

SC 올해 피아제의 방향성과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올해 피아제에서 선보일 새로운 주얼리나 워치 혹은 이벤트에 대해서도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올해뿐 아니라 피아제는 지속적으로 '컬러'를 키워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욱 컬러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피아제만의 색, 골드, 블루와 그린 등 다채로운 컬러를 중심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컬러에는 즐거움, 유쾌함, 생동감 등 피아제가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이 다소 무겁고 진지해질수록 색이 주는 에너지가 크게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물론 마스터 라인 제품까지 다양한 컬러를 확장하려 합니다. 그리고 하이 주얼리와 그 외 제품 사이에 연결성을 유지하려고 하죠. 저희는 고객들이 작은 링 하나를 구입할 때도 많은 에너지와 열정을 쏟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역시 고가의 하이 주얼리 외 모든 제품 제작에 동일한 에너지와 장인 정신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와 경험을 선사하려 노력합니다. 그것이 곧 피아제의 컬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의 1877-4275 에디터 **성경민**

interview
벤자민 코마
(Benjamin Comar, 피아제 CEO)

무려 30년간 럭셔리업계에서 다양한 커리어를 쌓아온 벤자민 코마는 2021년 6월부터 피아제에 합류해 브랜드를 이끌어나가고 있다. 다년간 많은 메종에서 쌓은 경험을 통해 브랜드의 DNA와 문화, 그리고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그는 피아제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회사를 살아 숨 쉬게 만드는 사람들과 그들이 지닌 노하우를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몇 년 후를 넘어 몇십 년 후 돌아봐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리더가 되고 싶다는 그의 말에서 리더로서의 강인함과 동시에 인간적인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다. 피아제 특유의 쾌활함과 위트를 갖춘 그를 만나 힘찬 도약을 향해 나아갈 메종의 포부를 들었다.



2



4

3

1 메종 피아제를 이끌어 나가는 CEO 벤자민 코마.
2 베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골드 소재 식스티 워치.
3 화이트 골드와 옐로 골드로 완성한 피아제 폴로 79.
4 지난 워치스 & 원더스 행사에 참석한 배우 전지현.

사진 정석원

Ring My Bell

단독으로 또는 레이어링해도 좋은 스몰 클래식 펜던트.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부터 차례대로) **그라프 로렌스 그라프 시그니처 컬렉션 스피닝 트리플 화이트 골드 펜던트** 모던한 3개의 패싯 화이트 골드 밴드 양옆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여성스러운 무드를 배가한 펜던트 1천4백46만원. 문의 02-2150-2320
반클리프 아펠 빠를리 클로버 펜던트 행운을 상징하는 클로버 모티브로 우아하게 장식하고 양옆의 아름다운 화이트 골드 비즈로 생동감을 불어넣은 스몰 네크리스 8백95만원. 문의 1877-4128
부쉐론 콰트로 더블 화이트 라지 펜던트 두 가지 다른 세공 방식을 적용한 화이트 골드, 화이트 세라믹, 6개의 라운드 다이아몬드 총 0.24캐럿을 세팅한 화이트 골드까지, 네 가지 링이 하나로 합쳐져 다채로운 매력을 자랑하며 자유분방한 실루엣을 완성한다. 8백99만원. 문의 080-822-0250
키린 스몰 울루 이터너티 네크리스 둔황 벽화에서 영감받은 곡선미 넘치는 울루 모티브로 완성한 네크리스로, 18K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함을 선사한다. 4백82만원. 문의 02-6905-3453
샤넬 파인 주얼리 코코 크러쉬 네크리스 18K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로 아이코닉한 퀼팅 모티브를 완성한 클래식한 스타일의 네크리스 가격 미정. 문의 080-805-9628
쇼메 비 드 쇼메 스몰 모델 펜던트 벌 모티브를 재해석해 벌집에서 영감받은 화이트 골드 소재의 육각형 모티브로 표현한 네크리스. 12개의 다이아몬드를 간헐적으로 세팅해 반짝임을 더했다. 5백90만원. 문의 02-1670-1180 에디터 **성경민**



Open Your Mind

사이즈 제약 없이 아름다움을 2배로 누릴 수 있는 오픈 스타일 링.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차례대로) **쇼메 비 드 쇼메 링** 브랜드에서 개발한 88패싯의 육각형 익스클루시브 컷 파베 다이아몬드 2개 및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옐로 골드 소재 링. 벌 모티브를 재해석해 생동감 넘치는 자연을 표현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1670-1180

카린 울루 링 둔황 벽화에서 영감받은 울루 모티브를 양쪽 끝에 배치하고, 그 안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반짝임을 더한 오픈 스타일 링 3백32만원. 문의 02-6905-3453

부쉐론 쌔뱅 보헴 핑크 쿼츠 트리플 모티브 링 지혜, 용기, 사랑, 보호 등을 상징하는 뱀 머리를 표현한 18K 골드 드롭 모티브 3개에 각각 다이아몬드와 핑크 쿼츠를 세팅해 개성 있는 스타일로 완성한 링 1천6백10만원. 문의 080-822-0250

피아제 로즈 링 로듐 마감 18K 화이트 골드에 75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약 0.62캐럿을 세팅했다. 메종이 사랑하는 로즈 모티브를 섬세하고 우아하게 표현한 링 1천7백50만원대. 문의 1877-4275

샤넬 파인 주얼리 코코 크러쉬 링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변형한 링으로, 샤넬 로고의 C 모티브를 옐로 골드로 완성하고 다이아몬드를 중앙에 세팅해 포인트를 주었다. 가격 미정. 문의 080-805-9628

반클리프 아펠 빠를리 컬러 비트윈 더 핑거 링 유쾌한 골드 비즈 장식의 두 모티브에 각각 다이아몬드와 말라카이트를 세팅해 생기와 다채로운 감성을 부여한 링 1천4백70만원. 문의 1877-4128

디올 파인주얼리 로즈 드 방 링 무슈 디올이 사랑했던 아이코닉한 별 모티브를 새긴 링으로, 18K 옐로 골드에 빈 공간을 자개로 메우고 중앙과 반대쪽 끝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3280-0104

그라프 와일드 플라워 컬렉션 더블 파베 다이아몬드 링 메종의 아이코닉한 꽃 두 송이를 18K 화이트 골드로 섬세하게 그려내고, 그 위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반짝임과 화려함을 극대화한 오픈 링 1천3백89만원. 문의 02-2150-2320

에디터 **성정민**

Spring is Blooming

올해도 프랑스 하이 주얼리 & 워치 메종 반클리프 아펠(Van Cleef & Arpels)이 봄의 시작을 알린다. 메종이 쌓아온 헤리티지를 바탕으로 탄생한 새로운 럭키 스프링 컬렉션과 아티스트와의 협업으로 완성한 마법과도 같은 봄의 정원으로의 초대, '스프링 이즈 블루밍(Spring is Bloom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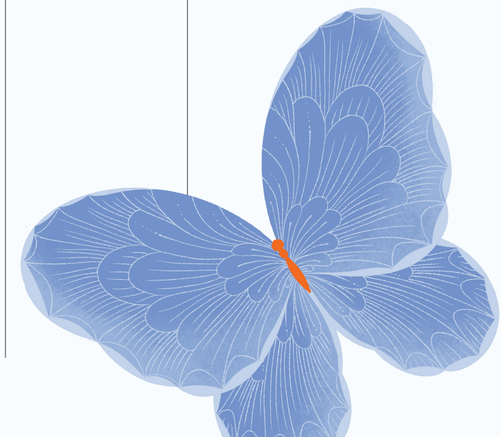
1 3

봄은 반클리프 아펠이 사랑하는 계절이다. 럭키 스프링 컬렉션은 매년 자연이 깨어나는 봄의 순간을 알리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새로운 컬렉션을 론칭하며 봄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를 진행한다. 3월 27일부터 롯데월드타워 월드 파크에서 진행하는 '스프링 이즈 블루밍(Spring is Blooming)'이 그 주인공. 매년 메종과 오랜 관계를 지속해온 아티스트와의 협업으로 진행하는 이 행사에는 2018년부터 메종의 아티스틱 파트너로 함께해온 샬롯 가스토(Charlotte Gastaut)가 참여한다. 샬롯은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태어나 18세에 파리로 이주해 ESAG(페닝엔 그래픽 예술학교)를 졸업했다. 그녀는 어린이 책의 일러스트레이터로 독보적 위상을 확립한 인물로 유수의 출판사들과 협업해 무려 80권 이상의 작품을 선보였다. 그뿐 아니라 장식, 예술, 다채로운 소재, 그리고 섬세한 판화 기법을 향한 열정을 바탕으로 2015년 자신의 실크 스카프 브랜드를 론칭했다. 그녀의 일러스트레이션은 아이들의 풍부한 감각을 일깨우고 많은 이들에게 환상적인 몰입감을 선사하며 꿈과 상상력의 세계로 이끌어 매혹하는 남다른 매력을 지녔다. 샬롯은 이번 반클리프 아펠 행사를 위해 궁정 드레스의 소재 중 하나인 실크에서 영감받은 파스텔 톤과 섬세한 디테일이 살아 있는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정원을 완성했다. 나비와 새가 날아다니고 꽃이 만개한 정원에서는 쉴 수 있는 그네와 벤치, 정원 중앙을 가로지르는 다리 등 조형물이 어우러져 바쁜 일상 속 휴식의 순간을 제공한다.

이번 '스프링 이즈 블루밍' 행사가 더 특별한 점은 매 주말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워크숍을 연다는 것이다. 봄꽃으로 화관을 만드는 수업부터 나만의 미니 정원 만들기, 화분에 직접 식물을 심어보는 화분 꾸미기 워크숍, 스프링 참 아틀리에 등 풍성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현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는 선착순으로 씨앗 카드와 설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봄 타투 스티커 등을 제공해 반클리프 아펠이 전하는 봄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워크숍은 사전 예약제로 3월 20일 오후 2시부터 카카오톡 예약하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반클리프 아펠의 '스프링 이즈 블루밍' 행사는 4월 12일까지 이어지며, 자세한 행사 정보는 반클리프 아펠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독 추운 겨울을 지나 드디어 맞이하는 봄, 힘차게 싹을 틔우는 새싹처럼 봄이 도래하는 순간을 축하하며 반클리프 아펠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의 순간을 만들어보자.

문의 1877-4128 에디터 **성정민**

1 반클리프 아펠의 새로운 럭키 스프링 컬렉션 네크리스와 브레이슬릿을 착용한 모델.
2 '스프링 이즈 블루밍(Spring is Blooming)' 이벤트를 알리는 싱그러운 디자인의 메인 비주얼.
3 이번 이벤트를 함께할 프랑스 아티스트 샬롯 가스토.



자석 잠금장치, 내부 플랫 포켓으로
오픈 스타일링 시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탈착 가능한 숄더와 크로스 보디
스트랩을 제공해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더블 애너그램 로고와
선명한 컬러가 돋보이는 카프 스킨
소재 아마조나 180 미니 백. 모두
18×11×7.5cm, 가격 미정 **로에베.**



Timeless Appeal

로에베 2026 S/S 컬렉션과 함께 공개된 아마조나 180 백은 브랜드 탄생 180주년을 기념하며 기존 아마조나 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아이코닉 백이다. 장식적 요소를 덜어내고 유연한 실루엣을 강조한 디자인은 특별히 고안된 소프트 카프 스킨을 적용해
오픈 스타일링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실루엣을 극대화하며, 소재와 컬러에 따라 서로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아마조나 180 백을 통해 하우스의
근간과 시간을 초월한 아름다움의 의미를 다시금 조명한다.

PHOTOGRAPHED BY **KIM HEUNG SOO**

1975년,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한
여성을 위해 탄생해 절제 속 우아함의
본질을 굳건히 유지하며 은은한 광택과
부드러운 레더 텍스처, 톱 핸들을 더한
여유로운 실루엣을 자랑한다. (왼쪽부터)
블랙 소프트 카프 스킨 소재 아마조나
180 스몰 백, 브라운 스퀘어 가죽
패치와 정교한 바인딩 디테일이 특징인
스웨이드 소재 아마조나 180 스몰 백.
모두 24×22×9cm, 가격 미정 **로에베.**
문의 02-3479-1785 에디터 **김하얀**



어시스턴트 강지원

Spring Fever

산뜻한 봄 날씨처럼 가볍고 편안한 로 프로파일 스니커즈.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날렵하고 뾰족한 앞코와 레드 포인트가 개성 있는 연출을 돕는 블레이크로우 레이스업 스니커즈. 그로그랭, 벨벳, 스웨이드 고트 스킨과 램 스킨으로 완성했다. 1백20만원 **셀린느.** 문의 1577-8841.
블랙과 화이트로만 완성한, 카프 스킨과 스웨이드 카프 스킨 소재의 클래식한 스니커즈. 아이코닉한 로고가 특징이다.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리나일론으로 제작한 구조적인 디자인의 초경량 스니커즈로 스포티하고 젊은 감성을 담았다. 측면에 신축성 있는 소재를 더해 착용하기 용이한 컬랩스 리나일론 스니커즈 가격 미정 **프라다.** 문의 02-3442-1831.
클래식한 디자인에 부드러운 소가죽을 사용해 편안하고 가벼운 착용감을 선사하며, 인트레치오 기법을 적용한 아웃솔 패턴이 디자인에 포인트를 더하는 타임리스 스니커즈 누드 89만원 **테스토니.** 문의 02-554-4310.
나일론과 카프 스킨 소재에 비대칭 형태의 넓은 앞코로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하며, 가벼운 러버 밑창으로 발의 피로감을 덜어준다. 루이스 웨인의 퓨처리스트 캣 도자기 꽃병에서 영감받은 독특한 세이프의 발레 러너 가격 미정 **로에베.** 문의 02-3479-1785.
깔끔하고 모던한 디자인의 스니커즈로 구조적이고 지지력이 뛰어난 아웃솔과 고반동 폼 인솔이 균형을 잡아주고 압력점을 지지해 하루 종일 회복을 돕는 리커버리 모드 스니커즈 25만8천원 **알로.** 문의 www.aloyoga.com/ko-kr.
양가죽 화이트 나파 레더 어퍼와 실버 글리터 스타, 힐 탭을 더하고 브랜드 특유의 빈티지 마감으로 완성했다. 스니커즈 스타일의 여성 화이트 스타 & 글리터 힐 탭 나파 볼스타 79만8천원 **골든구스.** 문의 02-519-2937.
일본 예술가 무라카미 다카시가 루이 비통을 위해 만든 모노그램 멀티컬러 캔버스와 부드러운 나파 가죽이 조화를 이루는 LV X TM LV 스니커라나 발레리나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에디터 **성정민**

어시스턴트 **강지현**

Crafted for Comfort



1



3



2



4



5

밀라노에서 탄생한 베네데타 보롤리(Benedetta Boroli)는 이탈리아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구조적 실루엣과 페미닌한 디테일을 교차시킨 아티스틱한 슈즈를 선보인다. 매 시즌 팝업 스토어를 매개로 국내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올해는 디자이너 브랜드와 문화 공간이 교류하는 서울 성수를 선택했다. 이곳에서 3월 19일부터 4월 19일까지 약 한 달간 아이코닉한 '스니커리나(Sneakerina)'를 공개하며, 밀라노와 서울을 연결하는 의미 있는 만남을 펼칠 예정이다.



6

Literally Perfect

베네데타 보롤리는 밀라노 기반의 브랜드로 고품질 가죽과 독창성, 그리고 무엇보다 편안함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모든 제품은 밀라노 북쪽의 파라비아고에서 제작되며, 탄탄한 내구성과 함께 신발을 구성하는 각 요소가 정교하게 어우러져 높은 완성도를 자랑한다. 주요 모델로는 유니크한 굽과 깔끔한 실루엣이 돋보이는 에드나(Edna), 스니커즈와 발레리나 슈즈를 통합한 스니커리나(Sneakerina) 등이 있다. 특히 스니커리나는 2cm 내부 힐과 유연한 솔 구조로 가벼운 착용감과 안정성을 동시에 제공하며, 브랜드를 상징하는 컬렉션답게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었다. 발등을 부드럽게 감싸는 비앙카 스니커리나 크로스(Bianca Sneakerina Cross), 클래식한 메리제인 디자인에 실용적인 기능을 더한 비앙카 스니커리나 메리제인(Bianca Sneakerina Mary Jane), 레이스업 디테일을 가미한 비앙카 스니커리나 레이스(Bianca Sneakerina Laces) 등이 대표적이다. 모든 소재는 혁신적인 네오프렌과 스페인 장인 정신을 결합해 뛰어난 신축성을 갖췄으며, 발의 형태와 크기에 구애받지 않는다. 여기에 이탈리아산 프리미엄 가죽과 스페인 장인의 사케토(Sacchetto) 공법을 더해 마치 양말을 신은 듯한 극도의 편안함을 구현한다. 슈즈 라인을 따라 이어지는 세밀한 손 스티칭 또한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디테일을 중시하는 브랜드의 철학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1 구조적인 힐을 적용해 우아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실루엣의 바티다(Batida) 뮬은 스니커리나와 함께 이번 시즌 핵심 컬렉션이다.
2 레이스업 디테일의 비앙카 레이스 체루리오.
3 비앙카 스트랩 실버 슈즈를 신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베네데타 보롤리.
4 스트랩과 레이스업 디테일의 만남, 비앙카 스트랩 바이올렛.
5 비앙카 레이스 실버는 편안한 착용감과 메탈릭 컬러가 포인트다.
6 베네데타 보롤리 특유의 물결 모양 아웃솔은 미끄럼 방지에 탁월하다.

Step Into Seongsu

3월 19일부터 약 한 달간 운영하는 팝업 스토어에서는 베네데타 보롤리를 대표하는 스니커리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스니커리나 크로스의 코코 모카(Cocco Moka) 리미티드 에디션을 주요 제품으로 소개할 예정이며, 방문객은 스니커리나의 다양한 라인을 직접 살펴보고 착용해볼 수 있다. 코코 모카 리미티드 에디션은 이탈리아 3대 커피 브랜드 라바짜(Lavazza)와 협업해 한국 시장에 특별히 출시한 모델로, 이탈리아 커피 문화에서 영감받은 모카 컬러와 엠보싱 크로커다일 텍스처의 조화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번 팝업은 단순히 제품을 선보이는 데 그치지 않고, 커피 문화와 어우러진 다채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브랜드가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공간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며, 방문객을 위한 감각적 체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브랜드 창립자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베네데타 보롤리는 "발 모양과 크기에 상관없이 신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신발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안 신은 듯한 편안함이 큰 장점이죠. 팝업을 통해 브랜드의 시그너처 스니커리나의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줄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제품 전시뿐 아니라 브랜드의 본질과 혁신적 디자인, 그리고 동시대성을 직접 경험하길 바란다.
문의 010-7151-3586
에디터 **김하얀**



임브로이더리 오간자 톱
7백40만원, 스웨이드 스커트
6백16만원 모두 **발렌티노.**
판테아 백 가격 미정 **발렌티노 가라바니.** 글래시어 플로럴
이어링 1천만원 **페로즈.**

Bold Bags

견고한 셰이프, 단정한 디자인, 심플한 디테일.
이번 시즌 뉴 백은 이 안에 답이 있다.

PHOTOGRAPHED BY ***LEE SANG HUN***



페플럼 비스코스 드레스
6백16만3천7백원, 페이턴트 레더
웨지 뮬 2백12만4천원, 누벅 백
4백28만원 모두 **알라이아.** 루미너스
헤일로 링 8백90만원 **반조애.**

실크 니트 톱, 스커트, 블랙 부츠, 베사체
아틀레 백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레더 베스트, 스커트, 허그 소프트
숄더백 모두 가격 미정 **페라가모.**
쥬엣 테니스 네크리스 2천
5백19만원 **페로즈.**



마크라메 크로셰 에이프런 가격 미정,
캐시미어 니트 톱 가격 미정, 포플린
브리프 가격 미정, 유틸리테어 스웨이드
백 4백95만원 모두 **미우미우.**



골드 드레스, GG 재키 1961 톱
핸들 백 모두 가격 미정 **구찌.**
카멜 이어링 3백84만원 **페로즈.**

하이넥 셔츠 3백27만원, 어시메트리컬 벌룬 스커트 7백95만원, 헤이븐 뮬 가격 미정, LV 투 고 포켓 스카프 가격 미정, 올 인 BB 백 3백98만원 모두 **루이 비통.** 카멜 이어링 3백84만원 **페로즈.**





싱글브레스트 레더 코트, 포플린 셔츠, 레더 글러브, 보니 미디엄 레더 핸드백 모두 가격 미정 **프라다.**

헤어 Ryunoshin Tomoyose
메이크업 **조혜민**
모델 Edan Avery, Zuzana(Exclusive Seoul)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구찌 02-3452-1521
루이 비통 02-3432-1854
프라다 02-3442-1831
에르메스 02-542-6622
발렌티노, 발렌티노 가라바니 02-2015-4655
알라이아 02-6905-3413
페라가모 02-3430-7854
미우미우 02-3218-5331
페로즈 02-542-1254
반조애 02-542-1254



1

인셀덤에서 ICD로, 헤리티지로 여는 새로운 장

피부 본연의 빛을 향한 여정

'병풀'은 아시아 전통 의학에서 오랫동안 피부 진정과 회복의 상징처럼 여겨져온 약용 식물이다. 고기능성 K-뷰티 브랜드 ICD는 바로 이 소중한 유산과 과학을 연결해, 주목할 만한 헤리티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제주에 구축된 리만팜에서 재배하는 헤리티지 원료 자이언트 병풀™과 독자적으로 개발한 핵심 성분 용암병풀수™가 그 중심에 있다.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 원료의 차별화와 연구 기술의 집약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키워가는 ICD는 빛의 근원을 향한 탐구를 바탕으로 '창조적 여정'을 이어간다.

피부나 의학에 관심이 있는 이라면 아마도 '병풀'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접해보지 않았을까. 상처를 치유하고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능이 빼어난 것으로 알려진 이 약초는 인도, 중국 등 아시아 전통 의학권에서 수천 년에 걸쳐 애용되어왔는데, '호랑이풀'로도 통한다. 호랑이가 상처를 입으면 병풀 밭에 몸을 구르며 스스로 상처를 보듬었을 정도로 뛰어난 치유력을 강조한 오랜 설화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센텔라 아시아티카(Centella Asiatica)'라는 학명을 지녔는데, 여기에서 비롯된 '시카(cica)'라는 용어가 자주 쓰이기도 한다. 재배 환경은 따듯하고 습한 환경을 필요로 하고, 대부분 손으로 채취하므로 우수한 품질의 병풀을 대량으로 조달하는 일은 그리 녹녹하지 않다. 병풀 원료를 제품에 적용하는 브랜드는 대개 인도나 아프리카산을 들여온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네 아름다운 화산섬 제주가 병풀 재배지로서의 여건을 갖췄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특히 온난습윤한 기후와 풍부한 일조량이 특징인 제주의 청정한 자연에 자리한 리만코리아의 첨단 스마트팜에서는 차별된 효능의 자이언트 병풀™을 안정적으로 키워내 글로벌 무대에서 K-뷰티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피부 지킴이들 사이에서 '병풀 스킨케어'로 유명한 인셀덤으로, 이제 ICD라는 이름으로 브랜드 여정의 새 장을 열고 있다.

빛의 근원을 향한 질문에서 시작된 브랜드 ICD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변하지 않는 가치를 찾는다. 빠른 선택보다 오래 남는 기준, 겉모습보다 본질에 집중하는 이유다. ICD 역시 출발점부터 '피부 본연의 빛'을 탐구해왔다. 브랜드 차원에서 한결같이 던져온 질문은 명확하다.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시작은 무엇인가?" 피부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 단위인 세포에 주목한 지향점이자 출발점은 '막 태어난 어린 세포가 지닌 빛'을 깨우는 것이었다. '어린 세포 발견의 비밀'이라는 슬로건은 ICD의 철학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브랜드와 함께해온 인물이 있다. 2021년 인셀덤부터 ICD로 이어지는 여정에 동행해온 브랜드 모델인 배우 원빈이다. 그는 화려한 연출이나 과장된 메시지 대신, 건강한 피부와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 그리고 신뢰감으로 브랜드의 가치를 일관되게 전달해왔다. 브랜드 관계자는 "원빈은 단순한 모델을 넘어 브랜드의 성장을 함께해온 파트너"라며 "ICD의 얼굴이자 스토리텔러로서 글로벌 브랜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했다. 2021년 '어린 세포 발견의 비밀'을 시작으로 원빈과 함께한 광고 캠페인은 브랜드의 진화를 기록하며 하나의 서사를 만들어왔다.

또 다른 도약의 시작, All New ICD

'본질'에 초점을 맞춘 제품에 대해 시장은 인상적인 속도로 화답했다. 2018년 창립된 리만코리아는 햇수로 3년 만에 제품 누적 판매량 1천만 병을 돌파했다. 이후 리만코리아는 지속적인 투자로 제품 라인을 확대하면서 2022년 미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대만, 홍콩 등 해외 시장으로도 꾸준히 판로를 넓혀나갔고, 이듬해인 2023년 '1천만 불 수출의 탑', 그리고 2024년 '2천만 불 수출의 탑', 그리고 지난해에는 '3천만 불 수출의 탑'을 거머쥐었다.

여기에 인셀덤에서 ICD로 리브랜딩한 지난해에는 헤리티지 2.0이라 부를 만한 원료의 독보적 진화가 더해졌다. 우선 ICD의 심장과도 같은 자이언트 병풀™은 기존 병풀보다 잎의 크기가 크고 생명력이 강해 피부 진정과 탄력 개선 등 주요 효능이 종합적으로 확인됐다. ICD가 오랜 연구 끝에 2022년 신품종으로 보호 등록을 마쳐(한국산림청) 리만만이 재배할 수 있는 헤리티지 원료다. 또 화장품의 80%를 차지하는 '물'의 중요성을 인식해 그 해답으로 40만 년 된 화산 암반이 품은 '제주 용암해수'를 택했다. 화산 암반층을 거치며 자연 여과된 제주 용암해수는 안정적인 수질과 미네랄 밸런스를 유지하며, 화장품 원료로 활용 가능한 유일한 수자원으로 평가받는다. 이렇듯 자이언트 병풀과 용암해수를 결합해 탄생시킨 용암병풀수™는 더마톨로지 전 라인업에 적용되었다. 미네랄이 풍부한 제주 용암해수와 자이언트 병풀™을 최적의 비율로 결합해 완성한 ICD의 핵심 원료다. 고농도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해 항산화를 돕고, 2025년 업그레이드를 거치며 보습 지속력과 사용감 역시 한층 강화됐다.

진화한 헤리티지, 글로벌 무대에서 빛을 발하다

헤리티지 2.0의 독보적 원료와 기술력은 글로벌 기준과도 궤를 함께한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의 품질 기준에 맞춘 제품은 글로벌 소비자의 품을 파고들고 있다. 또 부스터, 세럼, 크림 등 3종으로 구성된 'ICD 더마톨로지 라인'은 세계적 권위를 지닌 'iF 디자인 어워드 2026'에서 패키지 디자인 부문 본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세계적인 디자인 스튜디오 펜타그램과 협업해 완성한 패키지 디자인은 자이언트 병풀™과 용암병풀수™의 가치를 직관적이고 세련되게 구현했다. 알파벳 I·C·D를 겹쳐 형상화한 로고, 절제된 우아함, 그리니시 아이보리 색상과 현무암 질감이 인상적인 캡은 자연 유래 원료와 과학기술을 연결하는 시각언어로, 브랜드 신뢰도를 강화한다.

ICD의 성장에는 이처럼 차별된 헤리티지 원료와 더불어 연구·재배(리만팜)·추출·처방까지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된 기술력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성분을 넘어 '원료부터 제품화까지' 이어지는 '근본'을 향한 일관된 철학 덕분이다. 지금도 '피부 본연의 빛'을 향한 ICD의 연구 개발은 멈추지 않고 있기에 새로운 헤리티지의 구축도 기대된다. 이상적인 피부에 대한 지향점은 늘 같지만, 해답은 시대와 기술에 따라 진화하기 마련이니까. 글 **고성연**


2

"ICD 브랜드의 탐구 여정은 어린 세포가 지닌 피부 본연의 빛을 다시 찾는 것이었다. '어린 세포 발견의 비밀'이라는 슬로건은 이 같은 ICD의 철학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1 자이언트 병풀™과 제주 용암해수의 결정체, 용암병풀수™의 에너지를 담은 ICD 더마톨로지 부스터.
2 인셀덤에서 ICD까지, 브랜드의 여정을 함께해온 ICD 전속 모델 원빈.
3 제주도 서귀포 구좌읍에 자리한 세계 최초 자이언트 병풀™ 스마트팜, 리만팜(RIMAN FARM).
4 일반 병풀을 뛰어넘는 크기와 효능을 지닌 자이언트 병풀™.
5 피부 밸런스와 광채 케어를 위한 ICD 더마톨로지 3종(부스터, 세럼, 크림).
※1, 5 photo by 박재용



3


4

리만팜, 제주의 자연과 기술이 빚어낸 '자이언트 병풀™'의 시작

제주도 서귀포시 구좌읍, 초록빛 병풀이 가득한 곳이 있다. 리만코리아의 스마트팜 '리만팜'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이언트 병풀™'을 재배하는 공간이다. 탁 트인 온실 속 병풀은 빛과 바람을 머금으며 자라나는데, 이 풍경 자체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첨단 재배의 순간을 보여준다.

리만코리아는 이곳에서 자사 대표 브랜드 ICD의 주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글로벌 K-뷰티 시장을 향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2019년 신품종으로 출원된 자이언트 병풀™은 2022년 국내 품종 보호 등록을 완료했으며, 미국 농무부로부터도 보호권을 인정받았다. 자이언트 병풀™은 단순히 크기만 큰 품종이 아니다. 일반 병풀과 비교했을 때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고, 항산화·항염 효과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피부 진정과 노화 방지에 탁월하다.

리만팜에서는 천연 수분과 파이토케미칼이 가득한 생병풀로 재배한다.

최근 리만코리아 R&D 팀의 연구 성과는 더욱 흥미롭다. 병풀에서 유래한 유산균을 분리해 기존 유산균 대비 생존력과 장 부착력, 장벽 강화 능력이 뛰어남을 확인했고, 주름 개선과 미백 관련 특허도 출원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인 인체 유래 비피더스균과 결합한 '라이프닝 밸런스 바이옴' 제품은 장 내 토털 케어를 가능하게 한다고.

리만팜의 스마트 재배 시스템은 충북농업기술원의 특허 기술을 적용해 병풀 고유의 효능을 최대한 끌어낸다. ETFE 필름 천창을 통해 자연광을 충분히 확보해 유효 성분 생성 조건을 높이고,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연중 안정적인 생육 환경을 유지한다. 여기에 제주 용암해수를 양액과 추출 단계에 활용해 용암병풀수™라는 독자 원료까지 완성함으로써, 자연의 힘과 기술의 정교함이 결합된 원료 철학을 담아낸다.

리만코리아는 이러한 원료 경쟁력을 바탕으로 ICD의 글로벌 시장 확장에 속도를 낸다. 미국, 아시아, 유럽 주요 도시를 넘어 올해는 칠레, 페루 등 남미까지 진출하며 지속 가능한 뷰티 산업의 새로운 모델을 꾀하고 있다. 이로써 리만팜은 자연과 시간을 품은 원료 중심의 철학을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5



(위부터 차례대로) **로에베 비터스위트 오우드 오 드 퍼퓸** 신비로운 오우드에 시트러스와 샌들우드를 더해 깊고 풍부한 자연의 향을 만끽할 수 있다. 핸드블로운 글라스에서 영감받은 보틀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기포가 조형미를 강조한다. 100ml 64만8천원. 문의 02-3479-1484 **랄프 로렌 프래그런스 폴로 어스 파인 EDP** 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한 컬렉션으로, 콜로라도의 눈 덮인 숲 사이로 피어오르는 포근한 온기에서 영감받았다. 신선한 발삼 전나무 노트에서 스위트 오렌지를 지나 파출리와 시더우드가 어우러진 우디한 잔향으로 이어진다. 100ml 17만5천원. 문의 080-363-5454 **크리스챤 디올 뷰티 쟈도르 엠땅스** 쟈도르 뮤즈 리한나의 강렬하고 대담한 매력을 구현한 향. 부드러운 애프리콧을 머금은 재스민과 일랑일랑이 관능적인 플로럴 노트를 한층 돋우며, 샌들우드와 바닐라를 더해 따뜻한 여운을 느낄 수 있다. 50ml 21만8천원. 문의 080-342-9500 **겔랑 아쿠아 알레고리아 펄 플로라블룸** 장미, 아이리스, 바이올렛의 파우더리 노트가 조화를 이뤄 이슬 머금은 꽃 향을 생생하게 전한다. 끈적임 없는 유니크한 젤 텍스처가 피부에 부드럽게 스며들어 수분을 채우고, 한층 선명한 향을 남긴다. 사용 전 보틀을 거꾸로 뒤집어 가볍게 흔든 뒤 분사하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흡수시킬 것. 125ml 27만5천원. 문의 080-343-9500 **지방시 뷰티 이레지스터블 오 드 퍼퓸 넥타** 네롤리 에센스로 밝고 산뜻하게 시작해, 피스타치오 크림과 우아한 로즈가 만나 포근하면서도 달콤한 구르망 향을 완성한다. 35ml 13만5천원대. 문의 080-801-9500 **엑스니힐로 블루 탈리스만 오 드 퍼퓸** 브랜드를 대표하는 아이코닉한 향을 한 손에 쏙 들어오는 미니어처로 선보였다. 베르가모트와 진저, 만다린이 오렌지 블러섬과 머스크, 그리고 앰브로막스가 시간이 흐를수록 따뜻하면서도 시원한 향을 전달한다. 10ml 9만5천원. 문의 02-6905-3353 에디터 **김하얀**

Botanic Sprout

햇살 가득한 싱그러운 기운이 깃든 올봄 신상 향수6.

PHOTOGRAPHED BY **JEONG SEOK HEON**

어시스턴트 김지원



1 2

"리버티 뷰티는 한 점의 예술 작품을 소장한 듯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Artistic Tapestry of Scents

섬세하게 얽혀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완성되는 향의 조화. 리버티 런던의 디자인 헤리티지를 향으로 풀어낸 니치 향수 브랜드 리버티 뷰티(LBTY)가 롯데 에비뉴엘 잠실점에 국내 첫 매장을 오픈했다. 리버티 뷰티는 브랜드를 상징하는 아이코닉한 패턴과 예술적 감성을 향 하나하나에 담으며, 오랜 시간 이어온 미학과 장인 정신을 감각적으로 풀어낸다.

1 롯데 에비뉴엘 잠실점에 국내 첫 매장을 오픈한 리버티 뷰티. **2** 향수는 총 9종으로 리버티 패브릭만의 개성과 감성을 향으로 구현했다. **3** 100ml 향수 구매 시 브랜드의 헤리티지가 담긴 스카프 패키지로 제공한다. **4** 리버티 뷰티의 패키지는 정교한 플로럴 패턴과 컬러가 특징이다.

Beyond Heritage

리버티 뷰티는 1백5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럭셔리 백화점 리버티 런던이 전개하는 브랜드다. 독창적인 향에 대한 철학과 값을 매길 수 없는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차원의 니치 프레이그런스를 제안한다. 향수는 물론 홈 프레이그런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라인업을 갖추었으며, 제품에 브랜드의 정체성과 높은 완성도를 오롯이 담아낸다. 리버티 뷰티가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려면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875년, 리버티 백화점 창립자 아서 레이슨비 리버티(Arthur Lasenby Liberty)는 런던의 리젠트 스트리트에 작은 상점을 열고 아시아의 공예품과 직물을 수입해 판매했다. 매장은 빠르게 성장했고, 독창적인 패브릭과 패턴 디자인을 통해 브랜드만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그는 제품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대의 미술 공예 운동과 아르누보의 미학을 대중화하는 데 기여했다. 그 결과 탄생한 유기적인 플로럴 패턴은 오늘날 '리버티 프린트'로 불리며 브랜드를 상징하는 아이코닉한 유산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리버티는 6만여 종에 달하는 패턴 원단 아카이브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급 수공예품과 패션 아이템을 통해 창립자의 예술적 유산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2023년에 론칭한 리버티 뷰티는 이 방대한 패턴 아카이브에서 영감받아 야심 차게 탄생했다. 가장 사랑받아온 패턴을 모티브로 한 9종의 향수는 세계적인 조향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완성했으며, 각기 다른 패턴의 개성과 감성을 향으로 재해석했다. 정교한 플로럴 패턴과 화려한 컬러를 입은 향수 보틀은 한 점의 예술 작품을 연상시키며, 프레이그런스를 넘어 시각과 후각을 아우르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Art of Design

리버티 뷰티가 전하는 향이 궁금하다면, 롯데 에비뉴엘 잠실점을 직접 방문해보자. 국내 첫 매장으로 리버티 뷰티의 세계관과 향을 오롯이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시그너처 향수를 비롯해 각 향에 담긴 브랜드만의 아이덴티티와 그 안에 깃든 스토리, 그리고 영감까지 다층적으로 만날 수 있다. 매장은 마치 꽃밭을 거니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제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꾸몄다. 고급스러운 골드 컬러를 중심으로 리버티의 플라워 패턴이 바닥부터 벽면 등 공간 곳곳에 스며 있다. 마주 보는 진열 단상은 자연스럽게 동선을 이끌고, 라인업별로 정돈된 제품은 한눈에 보기 좋게 배치했다. 특히 베스트셀러 향수 라인은 매장 중앙에 자리해 시선을 사로잡는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향은 리버티 메이즈(Liberty Maze). 1970년대 예술가의 그림 같은 정원을 거닐 듯 은은한 얼그레이가 재스민, 프리로즈, 은자작나무와 조화를 이루며 상쾌한 분위기를 완성한다. 그 옆의 튜더(Tudor)는 리버티의 상징적인 건물에서 영감받은 향으로 백화점 천장에 걸린 패턴 직물 작품의 거친 질감을 향으로 풀어냈다. 생강과 캐머마일이 산뜻하게 퍼진 뒤 따뜻한 샌들우드와 아이리스가 깊고 부드러운 여운을 남긴다. 이외에 겹겹이 쌓인 잎사귀와 야자수의 싱그러움을 구현한 아델피 선(Adelphi Sun), 자유로운 표현을 추구하고 싶은 이에게 어울리는 앰버 향의 제피린(Zephirine) 등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향이 준비되어 있다. 리버티 뷰티 수입·유통사인 씨이오인터내셔널 홍보 팀은 "이번 롯데 에비뉴엘 잠실점 오픈은 리버티 뷰티를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향과 디자인, 스토리가 조화를 이루는 브랜드 경험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고유의 향을 자연스럽게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전했다. 브랜드의 헤리티지와 섬세한 미감, 예술을 향한 끊임없는 열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리버티 뷰티. 이제 향은 단순히 '맡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보고, 입고, 즐기는 감각의 영역으로 확장된 향의 세계를 온몸으로 마주할 차례다. 문의 02-3443-2772 에디터 **김하얀**



3



4

사진 **정석헌**

Save My Face

더 어려지고 싶다면 화장대를 재정비해야 할 때.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안티에이징 제품이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라프레리 스킨 캐비아 나이트타임 오일** 스위스 기술력으로 탄생한 독자적 레티놀과 캐비아의 특별한 조합으로 강력한 탄력 증진, 퍼밍은 물론 주름 개선 효과까지 선사하는 나이트 오일 20ml 84만7천원. 문의 02-6390-1170 **디올 캡춰 토탈 히알루샷** 초고농축 히알루론산 듀오와 펩타이드, 론고자 발효 추출물 등 최첨단 활성 성분을 함유한 포뮬러로 사용 직후 주름을 개선하고 눈에 띄게 탄탄하고 부드러운 피부를 선사하는 멀티 링클 코렉터 15ml 13만원대. 문의 080-342-9500 **라 메르 리뉴얼 오일** 피부 진정, 윤결, 광채, 개선, 보습에 뛰어난 해초 발효 원액, 미라클 브로스™를 함유해 피부 깊숙이 풍부한 영양을 전달하며 탄탄한 젊음의 기운을 불어넣어준다. 수분과 오일의 혁신적인 이중 구조가 잔여감 없이 빠르게 스며들어 오랜 시간 촉촉함을 유지해준다. 30ml 39만5천원대. 문의 1644-3947 **끌레드뽀 보떼 브라이트닝 세럼 수프림 II** 루미너스 알갱 추출물을 새롭게 추가한 리뉴얼 세럼으로 피부 속에 숨어 있던 빛을 되찾아준다. 래디언트 릴리와 골든 보태니컬 추출물이 본연의 힘을 길러주며 탄력과 윤기가 가득한 건강한 피부로 회복시켜 브라이트닝 효과를 선사한다. 40ml 43만원대. 문의 080-564-7700 **샤넬 수블리마지 르 바움** 피부과 관리 또는 외부 환경으로 약해진 피부를 진정시키고 고농축 활성 성분을 담은 포뮬러가 지친 피부에 활력과 리페어 효과를 선사하는 프리미엄 리커버리 밤 50g 70만원. 문의 080-805-9638 **시슬리 시슬리아 랭테그랑 앙티-아쥬 몽제비티 에센셜 세럼** 노화가 찾아온 피부를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혁신적인 안티에이징 세럼. 고순도 베타글루칸 성분이 지친 피부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피부 본연의 활력을 되찾도록 도와 노화 흔적을 개선해준다. 30ml 76만원. 문의 080-549-0216 **시세이도 바이탈 퍼펙션 인텐시브 링클스팟 트리트먼트 A+** 순수 레티놀 처방으로 고강도 링클 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폿 세럼으로 피부 콜라겐 생성 활성화와 주름 개선을 도와 가로세로 묵 주름은 물론 팔자 주름, 이마 주름까지 10가지 주름 개선에 효과를 볼 수 있다. 20ml 16만3천원. 문의 080-564-7700 **샹테카이 24K 골드 에센스 인텐스** 자연 유래 바이오 펩타이드 블렌드가 피부 톤을 밝게 하고 눈가를 포함한 피부의 미세한 주름을 개선한다. 렌틸콩 추출물이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피붓결을 정돈하며 24K 골드와 골드 비타민 C 성분이 광채를 선사해 어려 보이는 피부로 가꿔준다. 150ml 31만원. 문의 070-4370-7511 **겔랑 아베이 로얄 유쓰 리페어 아이 케어** 기존 아이 크림보다 블랙비 허니 성분을 5배 더 함유해 노화가 가장 빨리 찾아오는 얇은 눈가에 강력한 피부 개선 효과와 생기 및 탄력을 선사한다. 라이트한 텍스처로 약한 눈가 피부에 부담이 없으며, 수분감이 오래 유지된다. 15ml 13만8천원. 문의 080-343-9500 에디터 **성정민** 어시스턴트 **김지현**

The Suite Life

곡선과 직선이 어우러진 조형적인 실루엣,
공간에 생기를 더하는 컬러와 텍스처. 하나만 두어도
분위기를 바꾸는 1인용 체어.



르 코르뷔지에·피에르 잔느레·샬롯 페리앙 컬렉션 탄생 60주년 기념으로 키튼과 협업해 선보인 리미티드 에디션 1천8백만원대 **카시나.** 문의 02-515-7085



부드러운 곡선형 디자인이 돋보이는 미니 파필리오 체어 가격 미정 **비앤비 이탈리아 by 두오모.** 문의 02-6951-5123



일본 디자인 스튜디오 넨도(Nendo)와 사토 오키(Oki Sato)가 디자인한 리틀 암체어로, 곡선 셸과 요추 쿠션이 안정적인 착석감을 완성하는 테이프 다이닝(Tape Dining) 컬렉션 체어 가격 미정 **미노띠.** 문의 02-3446-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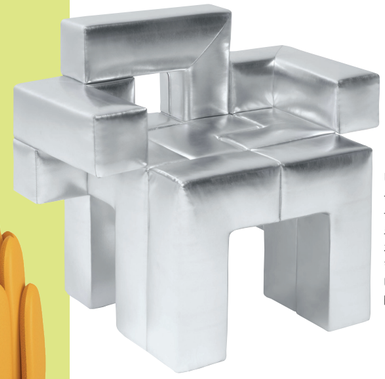
1960년대의 우아한 분위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으로 다이닝, 오피스 라운지 등 다양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0414 체어 가격 미정 **갈로티&라디체 by 플렉스 폼.** 문의 02-3447-6000



플로럴 패턴 패브릭과 볼륨감 있는 라운드 실루엣이 에트로 특유의 보헤미안 무드를 선사하는 달리아(Dahlia) 암체어 가격 미정 **에트로 홈.** 문의 02-3446-1321



촘촘한 스틸 로드 프레임과 곡선형 등받이로 완성한 플래트너 암체어 가격 미정 **놀.** 문의 02-6958-9222



비디오게임과 루빅스 큐브에서 영감받은 큐브 구조와 실버 메탈릭 표면이 돋보이며 스툴, 체어, 테이블 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 가능한 마인드 티저 가격 미정 **MCM.** 문의 1600-1976



캄파나 형제가 디자인한 체어로, 꽃잎처럼 겹겹이 이어진 쿠션이 몸을 감싸안으며 안락함을 전하는 벌보(Bulbo)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포근한 텍스처의 시어링과 내추럴 우드 프레임이 어우러진 라운지 체어 아디아다(Adiada) 가격 미정 **팬디 까사.** 문의 02-6952-1822



에르메스의 셀리에(Sellier) 가죽 장인 기술에서 영감받은 스티치 디테일과 슬림한 실루엣이 돋보이는 라 셰즈 셀리에 다이닝 체어 가격 미정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그린 팔레트의 패브릭과 우드 프레임으로 편안한 휴식을 선사해줄 피아제타 암체어 가격 미정 **로로피아나.** 문의 02-6200-7799

Editor's Pick

화사함을 더해줄 아이섀도와 립스틱, 피붓결을 정돈하는 각질 케어 제품과 크림, 향수와 헤어 퍼퓸, 캔들까지. 일상을 리프레시해줄 뷰티 셀렉션.

PHOTOGRAPHED BY **YOON JI YOUNG**



구찌 뷰티 구찌 루즈 아 레브르 브왈 132 릴라 토니 은은한 뉴트럴 밀크티 컬러에 멜팅 텍스처로, 입술에 부드럽게 발려 요즘 자주 손이 가는 데일리 립. 3.5g 6만3천원. 문의 080-805-0708 _by 에디터 **신정임**



NEW EYE PALETTE

샹테카이 플라밍고 던 아이 트리오 플라밍고의 깃털에서 영감받은 핑크 톤 컬러 조합이 특징이다. 셰이드 중 가장 어두운, 브라운 한 방울 가미한 핑크 섀도를 아이홀에 블렌딩하면 손쉽게 그윽한 눈매 완성! 3g 12만6천원. 문의 1644-4490 _by 에디터 **김하얀**



폴라초이스 바하 리퀴드 기존 제품보다 더 빠른 흡수력과 저자극 포뮬러로 리뉴얼 출시했다. 식물 유래 성분인 윌로우 바크 추출물을 함유해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피붓결을 정돈할 수 있다. 118ml 3만9천원. 문의 1661-6656 _by 에디터 **신정임**





FRESH BREEZE

클린 헤어 & 바디 퍼퓸 미스트 파파야 파라다이스 귀여운 아이스바 모양의 패키지에 시선을 뺏기고, 달콤하면서도 시원한 향으로 기분까지 즐거워진다. 피부와 모발 모두 사용 가능. 88ml 3만2천원. 문의 080-363-5454 _by 에디터 **김하얀**



SKIN RITUAL

리쥬란코스메틱 리쥬란 힐러 뉴트리티브 크림 호호바 씨 오일과 스쿠알렌 등 영양 성분이 가득하지만 밀림 없이 스며들어 촉촉함만 남긴다. 바르고 잔 다음 날 피부가 건강해진 느낌을 확인할 수 있다. 50ml 5만9천원대. 문의 031-8039-1500 _by 에디터 **성정민**

랑콤 이돌 피치엔 로지스 잘 익은 복숭아가 벨벳 로즈와 만나 달콤하면서도 관능적인 향을 뿜어낸다. 100ml 28만원. 문의 080-835-0094 _by 에디터 **김하얀**



샤넬 샹스 오 후레쉬 핸드 앤 바디 리퀴드 솝 가볍고 싱그러운 플로럴 스파클링 향이 기분을 환기한다. 상쾌하고 가벼운 거품과 부드럽고 촉촉한 세정력의 조화가 일품. 400ml 13만원. 문의 080-805-9638 _by 에디터 **성정민**



겔랑 라르 & 라 마티에르 컬렉션 옐로 자 & 베르가못 판타스티코 캔들 리필과 호환되는 구조로 취향에 따라 각 6종의 향과 패키지를 자유롭게 조합해 사용할 수 있다. 상큼한 베르가못 향과 옐로 컬러 캔들의 조합 추천! 캔들 10만3천원, 리필 12만1천원. 문의 080-343-9500 _by 에디터 **신정임**



돌체앤가바나 뷰티 오렌지 오일 립 플럼퍼 과한 글로시함과 끈적임으로 바르기 꺼려지는 타 오일 립 제품과는 다르게 빠르게 흡수되고 촉촉함만 남겨 투명한 유리알 립을 완성한다. 7ml 4만9천원. 문의 02-6905-3470 _by 에디터 **성정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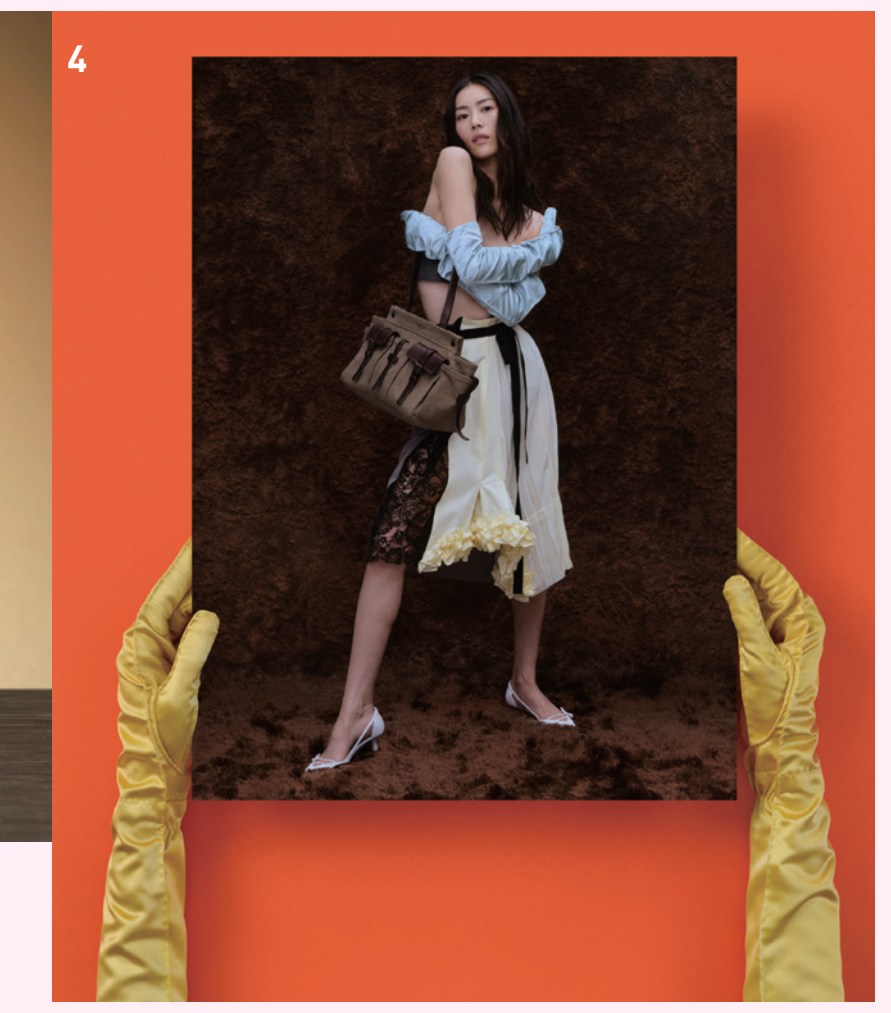
※ 성정민(30대 민감성), 김하얀(30대 건성), 신정임(20대 복합성)

Showroom


1


2


3


4


5



6

1 로에베 아마조나 180
로에베의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잭 맥콜로와 라자로 에르난데스가 2026 S/S 컬렉션 데뷔 쇼에서 아마조나 180을 공개했다. 소프트 카프 스킨 소재로 은은한 광택과 부드러운 촉감이 특징이며, 자연스럽게 흐르는 실루엣이 돋보인다. 문의 1670-1180

2 까르띠에 팬더 C 드 까르띠에 백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모티브인 팬더를 대문자 C 형태로 구현한 잠금장치가 돋보이는 팬더 C 드 까르띠에 백. 핸들에 장식된 29개의 움직이는 링이 경쾌한 소리와 빛을 부여해 주얼 백으로서의 매력을 자랑한다. 문의 1877-4326

3 쇼파드 L.U.C 콰트로 – 마크 4
쇼파드의 최상위 워치 라인 L.U.C 콰트로가 탄생 25주년을 맞아 4세대 모델 'L.U.C 콰트로 – 마크 4'를 선보였다. 이번 신제품은 플래티넘 케이스와 PVD 처리한 하늘색 다이얼, 화이트 골드 핸드와 바 인덱스로 완성했다. 두께 3.75mm 무브먼트에 4개의 배럴을 수직 적층해 총 2백16시간(9일)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한다. 문의 02-6905-3390

4 프라다 루트 백 출시
프라다가 2026 S/S 컬렉션에서 새로운 루트 백을 선보였다. 다양한 포켓을 배치해서 넉넉한 수납공간을 자랑하며, 스트랩과 메탈 버클을 더한 플랩 디테일이 고급스럽고 클래식한 무드를 자아낸다. 문의 02-3442-1831

5 샤넬 파인 주얼리 코코 크러쉬
샤넬 파인 주얼리 라인 코코 크러쉬가 출시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주얼리 라인을 선보였다. 화이트 골드와 옐로 골드, 샤넬 고유의 베이지 골드 소재와 볼륨감 있는 베이지 골드 와이드 커프 디자인에 초커와 짧은 네크리스, 변형 가능한 이어링과 링, 투톤 이어커프, 펜던트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출시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문의 080-805-9628

6 파네라이 루미노르 GMT 세라미카 PAM01783
파네라이가 새로운 모델 '루미노르 GMT 세라미카 PAM01783'을 제안한다. 40mm 블랙 세라믹 케이스에 깊이감 있는 블루 다이얼을 조합한 모델로, 전 세계 80피스 한정으로 선보인다. 크라운 보호 장치와 샌드위치 다이얼 구조 등 브랜드의 기능적 헤리티지를 반영했으며, 듀얼 타임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GMT 기능과 72시간의 파워 리저브로 실용성을 더했다. 문의 1670-1936

7 AP 뷰티 프라임 리저브 리트리니티 프로토콜
에이피 뷰티 하이엔드 라인 프라임 리저브에서 신제품 '프라임 리저브 리트리니티 프로토콜'을 출시했다. 피부 리프로그래밍에 기반한 고강도 3단계 트리트먼트를 선사하며 30일 집중 인텐시브 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단계별 피부 변화를 제공한다. 일시적 개선을 넘어 오래 지속되는 안티에이징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문의 080-023-5454

8 아르투스 베르트랑 아프로 리(Apro Lee) 컬래버레이션 컬렉션
프랑스 헤리티지 주얼리 메종 아르투스 베르트랑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 첫 정규 매장을 오픈하고, 이를 기념해 글로벌 타투이스트 아프로 리(Apro Lee)와의 협업 컬렉션을 선보였다. 한국 민화 속 호랑이와 까치를 모티브로 벽사와 수호의 의미를 담았으며, 전통과 현대, 프랑스와 한국의 미학이 어우러진 '럭키 참(lucky charm)' 디자인이 특징이다. 문의 02-3467-8394

9 ICD 래디언솜™ 100 마이크로플루다이저 3종
고기능성 스킨케어 브랜드 ICD가 프리미엄 미백 라인 '래디언솜™ 100 마이크로플루다이저'를 업그레이드해 선보였다. 토너, 에센스, 크림 등 3종으로 선보이며, 기존 대비 마이크로플루다이저 공법 적용 횟수를 늘리고, 플렉서블 리포솜 기술을 도입해 유효 성분이 피부에 보다 균일하고 부드럽게 흡수되어 최상의 컨디션을 경험할 수 있다. 문의 1522-8144

10 오메가 블랙 & 화이트 스피드마스터 문워치
오메가는 2026년을 맞아 블랙과 화이트 인버티드 다이얼을 적용한 새로운 스피드마스터 문워치를 공개했다. 지름 42mm의 스테인리스 스틸 버전과 18K 문샤인™ 골드 버전으로 출시하며, 클래식한 크로노그래프 디자인을 기반으로 더블 플레이트 구조의 인버티드 다이얼을 장착했다. 브레이슬릿에는 오메가의 특허 기술인 컴포트 릴리즈 조절 시스템을 적용해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문의 02-6905-3301

11 리버티 뷰티 국내 첫 오프라인 매장 오픈
런던 헤리티지를 담은 니치 향수 브랜드 리버티 뷰티가 지난 2월 27일, 롯데 에비뉴엘 잠실점에 국내 첫 매장을 오픈했다. 새로 오픈한 매장에서는 브랜드가 지향하는 정제된 무드와 감성을 반영한 디스플레이는 물론, 다양한 향수 라인업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43-1805

12 시몬스 시즌브리즈 울 필로우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가 베개 신제품 '시즌브리즈 울 필로우'를 출시했다. 중앙부를 두 번 눌러준 구조로 설계해 머리와 경추를 자연스럽고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산 양모 100% 충전재로 탄탄하면서도 유연한 쿠션감을 자랑한다. 문의 1899-8182


7



8


9



10



11


12


CHANEL